



[산업] 완성차업계 '체험이 곧 마케팅' 이색 브랜드 가치 전달 05



Economy

코스피	2308.46 (-0.52)	코스닥	826.91 (-4.94)
금리 (미국 3년)	2.00 (+0.02)	환율 (원/달러)	1121.10 (-2.10) (19일)

南北 비핵화 진전,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금지 '합의'

한반도 '核 없는 평화의 땅' 멀지 않았다

남북정상회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

미사일발사대 등 영구 폐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협력
순, 올해 서울 방문 약속도

남북정상, 오늘 백두산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빠르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한다.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남북군
사공동위원회도 조속히 가동하는
등 전쟁 위험을 제거해 한반도를
항구적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해 노
력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2, 3, 4, L7〉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기로 한 가운데 북한은 추가 조
치의 하나로 평북 철산군에 있는 동
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를 영구 폐기하기로 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상
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은 영변 핵시설도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을 오가는 동해선·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도
올해 안에 갖는다.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
결하기 위해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
족 상설면회소를 빠르게 연다. 화
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도 우
선 해결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
정은 위원장은 일정 마지막날인 20
일 백두산을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19일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회담
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북녘 동포 여러분,
남녘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
러분,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
다"면서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군사분
야이행합의서'를 이날 평양공동선
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원
인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
을 방문하기로 했다"며 "가까운 시
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
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확인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전날과
이날 이어진 평양정상회담에서 처
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도 합
의했다. 특히 '비핵화 의지'에 대한
김 위원장의 욕성이 처음으로 전파
를 뒀다.

김 위원장은 "수십 년 세월 지속
돼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면서 "조
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아가기로 약속했다"고 밝
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남과 북은 이날 평양공동선언을
통해서 경제·문화·의료 등의 교류
와 협력도 더욱 넓혀나가기로 했
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
한 실질적 대책을 만들어나기로 했
다"면서 "환경이 조성되는대로 개
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
화도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32년 하계올림픽을 남북
이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해 유치에
협력하기로 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김승호 처장(팀장)
이범중·구서윤·나유리·정연우 기자

시밀러 1상·신약 3상부터 '자산화'

제약·바이오 회계지침 마련 오류 자체 수정하도록 유도

앞으로 신약은 임상 3상부터, 바
이오시밀러의 경우 임상 1상부터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기간 논
란이 지속됐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회계처리를 어
떻게 해야 할 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 것.

이와 함께 현재 감리를 진행 중
인 22개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해
선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오류가 있
더라도 스스로 바로 잡을 경우 제재
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
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
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내놨다. 감
독지침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약품유형에 따라 자산화 단계가
달라진다.

바이오시밀러는 오리지널 약과
의 유사성이 검증된 임상 1상부터
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
다.

반면 신약은 임상 3상부터다. 장
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
약의 안정성과 약효 등에 대한 검
증을 거쳐야 자산가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제네릭(복제약)은 오리지널 약
품과 생체이용률이 통계적으로 동
등한 지를 검증하는 생동성시험
계획을 승인했을 때부터, 진단시
약은 허가신청이나 외부임상신청
등 제품검증 단계부터 자산화가

가능하다.

감독지침이 있더라도 회사는 개
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
거로 달리 판단해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감리 과정에
서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더욱 면밀
히 검토할 계획이다.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
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을 비용으
로 인식해 원가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했다.

또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
을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에 주식
으로 공시토록 했다.

이번에 회계처리 지침을 마련한
만큼 과거 회계처리 오류에 대해서
는 제재보다는 시정을 요구해 재작
성토록 할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I·SEOUL·U
내리 내리 서울

자세한 정보는 seoul.go.kr

올 추석,
전통시장도
소상공인 마음도
환해지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환해지도록!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전통시장 117개소 주차차 허용(18.09.13-10.07) /
금액별 경품 제공 / 제주용품 할인행사 /
제기차기, 송편나누기 등 다양한 이벤트

소상공인, 힘나도록!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결제수수료 0% 서울페이(가맹) 추진 /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
유급병가제·고용보험료·노란우산공제 지원확대 /
최저금리 긴급자영업자금 / 상가밀집지역 주정차단속 유예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철도-도로 연결, 개성-금강산 재개, 특구 '이젠 경제다'

(동-서해)

평양공동선언 합의문

강릉~제진, 문산~개성 구간 올해 안 연결공사 착공 못 박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도 추진 금강산 상설면회소 조속 복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까지 이틀간의 평양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날 평양 백화원연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함에 따라 남·북한을 잇는 철도와 도로 등 대동맥 연결 작업이 본격화된다.

또 남북으로 흩어져있는 이산가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상봉 정례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 도로는 남측구간부터

우선 주목되는 것은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을 올해 안에 하기로 못 박은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 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북제재도 여전히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남측 구간의 공사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날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이뤄지



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km)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철도 경의선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 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됐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

화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된다.

물론 남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를 붙였다.

금강산 관광이나 경제특구 등은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 바로 추진하기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구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해경제특구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평화, 새로운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기념

9월 평양공동선언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함으로써 채택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 남북 교류협력**
 - 연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
 -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 서해경제특구 및 동해관광특구 조성 협의
 -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위한 남북 환경협력 추진
 -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 협력 강화
- 이산가족 문제 해결**
 -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 문화·체육 교류 협력**
 -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 진행
 - 2020년 올림픽 등 국제경기들에 공동 진출
 -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 10.4 선언 11주년 및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기념행사
-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
 - 동창리 연진시험장 미사일 방사능 유관국 참관 허 연구 폐기
 - 미국 상용조치 시 양변핵시설 영구 폐기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 함께 긴밀히 협력
- 김정은 국무위원장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방문**

자료: 2018 남북정상회담 협정 /뉴시스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 방안과 연결된다.

◆이산가족 위한 상설면회소 조기에 문 열기로

'9월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금강산 지역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는 내용도 담겼다.

금강산 지역에는 2008년 7월 완공돼 이산가족 상봉행사장으로 이용돼 온 면회

소가 있지만 간헐적으로 열려온 상봉행사 이외에 상시적인 이용은 불가능했다.

이 면회소는 우리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한적)에 총 공사비 550억원을 무상지원해 세워진 건물이다.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에 있고, 연면적이 1만9835㎡로 전망대, 대연회장, 소연회장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12층의 면회소 건물과 면회사무소 2개 등으로 구성됐다. 또 2인실과 가족실 등 총 20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두고 해당 면회소에 일부 개보수가 이뤄지기도 했다.

남북 정상은 이날 상설면회소를 조기 개소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금강산 면회소 시설이 복구돼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정상은 이외에 평양공동선언문에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명시해 주목된다. 이는 이산가족 고통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줄여줄 실질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간헐적으로 한차례 100명 정도씩만나는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 요원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남측에서 13만2731명의 이산가족 신청자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7만6024명이 사망했고, 생존자(5만6707명) 중 80세 이상이 62.6%(3만5541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이대로 평양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개성까지 이어진 경의선 철도 임진강역. 위쪽이 개성 방향. /연합뉴스

JY 등 경제인들 1호 방문현장은 '양묘장'

남북 산림협력 가속화 관측 교육자 양성 평양교원대 방문도 대동강수산물식당서 저녁식사

평양을 방문한 경제인들이 산업시찰 1호지로 '양묘장'을 찾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주요 기업 총수를 비롯한 17명의 경제인들은 19일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122호 양묘장'을 방문했다.

양묘장은 묘목을 심어 기르는 곳으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은 북한 양묘장의 본보기로 알려졌다. 2016년 5월 준공됐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2015년 12월 재건을 지시했다. 규모는 약 47만㎡ 추정되며 연간 생산능력은 2000만 그루에 달한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녹화정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해 온도와 습도, 탄산가스함량, 통풍량, 관수량 등 나무모 재배를 위한 통합조종체계를 훌륭히 구축한 것에 대해 커다란 만족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현대화의 과업을 제시했다.

이번 경제인들의 양묘장 방문을 두고 북한이 산림 녹화에 관한 남북한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에 김재현 산림청장도 포함되면서 남북의 산림협력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경제인들이 18일 인민회관에서 열린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 면담에 참석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경제인들은 양묘장 방문에 이어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동 소재의 '평양교원대학'을 찾았다. 평양교원대학은 평양 시내 소학교 및 학령 전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 양성기관이다.

위대성 교양을 위주로 하는 5대 교양 프로그램과 전자교양 자료,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12년제 의무교육 강령 집행을 위한 교재 집필 등도 하고 있다.

김정은은 작년 2월 평양교원대학을 방문해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 대학으로 잘 꾸리고 전국에 일반화할 것 지시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방문했다. 우간다 대통령, 중국리잔수 상무위원장 등 여러 인사가 이곳을

다녀갔다. 저녁에는 평양 시민들이 자주 찾는 것으로 알려진 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한편 전날 오후 3시 30분경 남측 경제인들은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를 비롯한 북측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북한 황호영 지도국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 "많이 봤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악수를 청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뤄졌다.

리 내각 부총리는 "처음 뵙지만 다 같은 경제인이고, 통일을 위한 또 평화 번영을 위한 지점이 같아 마치 구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예술공연 관람한 '5월1일 경기장'은

수용인원 15만명... 北 최대 종합경기장

평양 중심 대동강 능라도에 자리

1일 완공됐다. 5월1일은 국제 노동절이다. 이에 따라 준공 직전까지는 '인민대경기장'으로 불렸으나 준공을 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문 대통령 일행이 이날 5월1일 경기장에서 관람한 공연은 '빛나는 조국'이다. 빛나는 조국은 북한의 대표적인 혁명 가요이자 군가다. 이에 따라 '제3의 애국가' 또는 '제3의 국가'로도 불린다. 해방 직후인 1946년에 만들어진 빛나는 조국은 김일성 주석이 승인한 곡이기도 하다.

북측은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환영하는 뜻에서 공연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공연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공연에 앞서 경기장에 있는 15만명의 북측 주민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깜짝 이벤트'도 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등이 19일 저녁 예술공연을 관람한 '5월1일 경기장'은 평양 능라도에 있는 북한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경기장이다. 5월1일 경기장은 최대 수용인원만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경주장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다목적 경기장으로도 꼽힌다.

경기장이 위치한 능라도는 양각도, 두루섬 등과 함께 평양의 중심을 흐르는 대동강에 위치한 섬이다. 면적은 1.3㎢, 둘레는 6㎞다. 평양 시내와는 두 개의 다리를 이용해 오갈 수 있다.

5월1일 경기장은 1989년 8월에 열린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앞서 그 해 5월

핵안급, 북미협상 재개 '실마리'... 사실상 불가침 합의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전역 전쟁위협 없애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수십년 적대역사 끝장위해 합의”



영구폐쇄하기로 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모습. /연합뉴스

남북이 서로를 겨누던 총부리를 거두고 주요 핵시설도 폐기하기로 합의하면서 '종전'의 문턱을 닦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백화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남북은 오늘 한반도 전지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역시 "수십년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 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며 "평화의 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선언문에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 ▲ 미국의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른 상응 조치 후속으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 ▲ 한반도의 안전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의 긴밀한 협

의 등 3가지 합의가 담겼다. 앞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고 발표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한층 진전된 모습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 따라 지난 5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화성기를 철수했다. 같은 달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외신을 불러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북핵 폐기 합의는 북한의 선제적 핵 폐기 문제로 줄다리기를 해 오던 북미간 협상 재개에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가)

20%만 진행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역 적대 청산 '사실상 불가침 합의'**
육·해·공 전반에 걸친 남북 간 적대 구도 역시 청산돼 불가침 합의로 굳어질 전망이다. 이날 체결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간의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남북이 초보적 단계의 군비 통제를 시작한 셈이다.

우선 남북은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멈춘다. 이날부터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이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금지된다. 국방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야외기동훈련은 군사분계선 5km 외부 지역에 있는 전방연대의 예비대대 위주로 진행되므로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에 미치

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도 사라진다. 남북은 시범 조치로 상호 1km 근접한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무장을 해제한다.

해상에서는 약 80km에 이르는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정하고 함포 사격과 해상기동 훈련을 중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북측 초도 이남 수역, 동해는 남측 속초 이북~북측 통천 이남 수역이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문은 폐쇄한다.

◆**우발 충돌 방지 '경고방송'...민간기 제외**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이 조성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한 군사적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복원 이행한다는 설명이다.

공중의 경우,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 비행 금지구역에서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한다. 고정익 항공기는 동서부 각각 40km와 20km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했다. 회전익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서부 각각 15km와 10km로 적용한다. 비행금지 구역은 민간 여객기와 화물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남북은 우발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 등 5개 단계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공중에서는 경고교신과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남북은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에 대해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산발 진화나 환자 후송, 기상 관측과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결핵 등 보건의료지원 물꼬

감염병 관리·모자보건 중심 추진

남북 정상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08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대북 보건의료지원 사업이 다시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평양공동선언문'을 통해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행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은 북한이 대응 능력을 상실한 감염병 관리와 모자보건 등을 중심으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한의 결핵 문제는 심각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5년 북한의 인구 10만명당 결핵 유병률은 561명에 달한다. 세계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834명)과 레소토(788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환자의 상당수가 최소 2가지 이상의 치료제에 내성을 가진 결핵균에 감염돼 치료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이 끊기자 북한은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세계기금의 지원을 받아왔지만, 세계기금이 최근 지원 중단을 선언하면서 '북한발 슈퍼결핵'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방역체계 붕괴와 백신 부족으로 수인성 질환과 신종 전염성 발생에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협력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남북이 앞으로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등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을 본격화하면 전염병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 인프라가 부실한 상황에서 북한으로 감염병이 유입될 경우 북한 주민뿐만 아니라 남쪽에서 파견한 인력도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카드의 정식 DISCOUNT

카드의 정식 DISCOUNT

카드의 정식

카드의 정식

카드의 정식

카드의 정식

카드의 정식 DISCOUNT

모든 국내 가맹점에서 전월 실적 조건없이 0.7% 청구 할인
(모든 가맹점은 우리카드 잔상 상 등록 기준임)

대중 교통, 스타벅스·폴바셋 10% + 주유 시 리터당 최대 100원 청구 할인

·전월 국내가맹점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시 제공 (실적/할인 제외는 상품안내장 참조. 단, 주유 할인 시 LPG는 할인 제외)
S-OIL, 현대오일뱅크 주유 시 리터당 100원 청구 할인 / 전월 국내가맹점 이용금액 100만원 이상 시 제공

·연회비 - 카드의 정식 DISCOUNT : MasterCard / VISA 12,000원, UnionPay 10,000원

·상세혜택 및 이용조건은 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홈페이지(www.wooricard.com), 상품설명서, 약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율 : 정상이자율 + 최대 3%(p), 법정 최고금리(24%) 이내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금리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금리

※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8-CII-07295호 (2018.06.25~2018.09.25)

우리카드

文-金 ‘민족영산’ 백두산 천지 함께 오른다

삼지연 공항서 차편으로 장군봉 이동
날씨 맑으면 천지로 등반 예정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백두산을 함께 간다. 날씨가 좋을 경우엔 천지까지 밟을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내일 백두산 방문을 함께하기로 했다”면서 “두분의 백두산 방문은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이 ‘천지까지 가느냐’고 질문하자 “일단 백두산 남쪽 정상인 장군봉까지는 올라갈 예정이고, 날씨가 좋으면 내려가는 길에 천지까지도 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상에 따라 유동적이다. 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상기 좋지 않으면 중간쯤에 끊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산행 방식에 대해서는 “버스를 타고 산 중턱까지 올라간 다음, 궤도 차량을 타고

장군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으나 보다. 장군봉 정상에서 천지로 내려가는 길은 삭도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제 백두산행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 사이의 일”이라며 방북 이전에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평소에도 백두산을 가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가더라도 중국 쪽이 아닌 우리 쪽을 통해 가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쪽 아시는 분들을 통해 중국을 거쳐 천지에 오르는 방안을 여러 차례 제안을 받았지만, 우리 땅을 밟고 올라가고 싶다고 말씀하며 이를 마다한 바 있다”며 “이런 점을 북측에서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동행 인사에 대해서는 “김정

숙 여사는 당연히 (함께) 간다”며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자단을 포함한)수행원들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순안공항에서 함께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 근처 삼지연 공항에서 내려 거기에서 차편으로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삼지연에서 (환송행사도)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여사, 공식수행단, 특별수행단 일행은 삼지연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두 정상에 백두산을 함께 가는 것에 대해 “백두산은 우리민족의 영산이고 상징적인 산”이라면서 “대통령께서 (과거) 여러 차례 중국을 통하지 않고 우리 땅을 통해 천지를 오르고 싶다고 말씀하신 만큼 북측에서 이런 바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행)을 제안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이번 회담에도 옥류관 랭면 먹었다

정상회담 마치고 오찬 위해 이동
시대상·분위기 따라 메밀 함량 달라져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그 냉면은 이번 회담에도 함께 했다.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인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오전 정상회담을 마친 뒤 오찬을 위해 옥류관으로 이동했다.

평양 대동강변에 위치한 옥류관은 평양냉면으로 유명하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평양 정상회담 오찬 장소로 유명한 옥류관은 2010년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연간 방문객이 137만 6000명, 하루 약 3800여명에 이른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문 대통령은 평양냉면을 맛봤다.

북측의 옥류관 수석 주방장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 설치한 옥류관 제면기에서 직접 면을 뽑아 회담장 만찬에 평양냉면을 내놓은 것. 문대통령이 “만찬 음식으로 옥류관 냉면이 좋겠다”고 제안하자 북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리면서 문 대통령은 옥류관을 직접 방문해 평양냉면을 맛볼 수 있게 됐다.

평양냉면을 한 번쯤 접해본 사람들은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옥류관 평양냉면을 먹고 있다. /평양사전공통취재단

“밍밍하다, 심심하다, ‘담백하다’ 등으로 평양냉면 맛을 표현한다. 그도 그럴 것이 평양냉면의 맛을 한마디로 표현할 단어가 딱히 없기 때문. 평양냉면을 맛본 그들은 “도대체 무슨 맛인지 표현하기 어렵다”며 “여러 가지 맛이 섞여있는 은은한 맛을 느낀다”고 말한다.

옥류관 평양냉면의 특징으로 꼽히는 것은 ‘육수’와 ‘면’이다. ‘육수’는 소, 돼지, 닭 고기를 배합해 우려내는 일반육수와 달리 꿩과 닭 육수를 이용해 깊은 맛이 난다.

반면 담담하고 쫄깃한 면은 메밀의 함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시대상과 분위기를 담으며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메밀과 전분 함량 비율이 달라지고 있는 것. ‘고난의

행군’ 시기 메밀의 소출이 줄어들자 고구마나 감자 등의 전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996년 북한의 조선료리협회가 출간한 ‘조선료리전집’에는 메밀과 전분함량이 8대 2라고 적혀있지만 현재 평양냉면의 메밀과 전분함량 비율은 5대 5나 6대 4 정도다.

옥류관 지배인 명예화씨는 ‘육수’와 ‘면’만 같다고 옥류관 평양냉면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평양의 시간은 서울의 시간과 함께 흐른다’의 책을 통해 그는 “평양냉면은 육수와 면 외에도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낫그릇, 낫짓가락, 낫잔’, ‘시원하고 쫄깃(시원하고 차가운) 육수’, ‘꾸미(고명)’가 어우러져야 평양냉면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평양시민과 함께 만찬… 文, 北서도 소통

대동강 수산물식당서 환송만찬 예정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둘째날인 19일 평양 시민들이 자주 찾는 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 환송 만찬을 할 예정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정상회담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저녁에 평양 시민이 자주 찾는 식당인 평양 대동강수산물식당을 방문해 북측이 방에서 대통령 내외와 공식 수행원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고 말했다.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는 평양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게 된다.

올해 7월 공사를 끝내고 개업한 대동강수산물식당은 대동강변에 배 모양으로 세워진 대형 식당이다.

식당에서 밖을 보면 대동강과 룡라인 민유원지, 5월1일경기장, 청류벽 등이 한눈에 보인다.

식당 1층에는 철갑상어·연어·칠색송어·조개류·자라 등을 모아놓은 실내 수조와 낚시터가 있고, 갯잡은 생선을 요리해 내놓는 식당은 대부분 2층과 3층에 있다.

가격이 비싸 서민이 쉽게 이용할 수는 없지만, 크고 작은 연회 공간을 갖춰 평양 시민들이 큰 행사 때 종종 찾는 곳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 식당에 대해 ‘바다와 강, 땅

에서 나는 모든 산해진미를 얹은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일등급의 봉사 기지’,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심혈과 노고를 다 기울이시는 김정은 동지의 인민 사랑의 결정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식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이름을 짓고, 부지도 선정했으며, 시찰도 하는 등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리설주 여사와 준공을 앞둔 대동강수산물식당을 둘러보면서 “옥류관과 같이 평양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인민봉사기지가 태어났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만찬을 가급적 평양시민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북측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인 리설주 여사가 18일 오후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해 오케스트라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평양사전공통취재단

음악으로 통한 퍼스트레이디

김정숙 여사 - 리설주 여사
옥류아동병원·음악종합대학 방문

남과 북의 퍼스트레이디는 ‘음악’을 통해 교감을 나눴다.

김정숙여사는 19일 오전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참관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김일성 주석의 고향인 평양시 만경대구역에 자리하고 있으며 원조격인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인기를 끌면서 1989년 5월 부지 30만㎡, 건평 12만㎡ 규모로 나름대로 현대적이고 화려하게 건설됐다.

특히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예체능 영재학교인 금성중학교를 부속으로 두고 있어 이곳 학생 대부분이 방과 후 궁전에서 음악 등 예술교육을 받는다. 리설주 여사 역시 금성중학교를 다니면서 학생소년궁전에서 방과 후 교육을 받은 만큼 리 여사에겐 사실상 모교나 다름없다.

당초 이날 김 여사의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발걸음에는 리 여사도 함께 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이 바뀌면서 김 여사만 찾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추가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내에 있는 예술체조소서실, 수영장, 극장을 둘러봤다.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은 북한의 예체능 분야 영재교육기관으로 알려진 곳이다.

김 여사와 리 여사 사이에는 ‘음악’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 평양 방문 첫째 날인 지난 18일에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김 여사와 예술단 가수 출신인 리 여사의 공통점을 살려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옥류아동병원 방문 일정을 양측 여사들이 함께 소화했다.

리 여사는 또 18일 평양 순안공항에 직접 나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여사를 환영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부인과 함께 평양에서 타국 정상을 맞이하는 것은 처음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 부인과 동행하는 통상적 외교 관례를 따르면서 북한을 ‘정상국가’ 반열에 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국 간 정상회담에 양측 정상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것은 외교적 관례로 통한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남북정상회담 때 각각 이희호 여사, 권양숙 여사와 동행했었다.

일각에서는 리 여사가 공식석상에서 김 위원장을 ‘위원장’이 아닌 ‘남편’이라고 칭하며 정상회담 일정에 동행한 것은 북한이 ‘비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정상적 외교가 가능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두 퍼스트레이디가 옥류아동병원과 음악종합대학을 방문하게 된 배경은 북측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카~! 문화에 취하네’... 체험이 곧 마케팅이다



(car)

완성차, 이색 브랜드 가치 전달

현대차 국내외 모터 스튜디오

미술 전시·복합 문화행사 진행

BMW 영종도에 드라이빙센터

차 문화부터 원리까지 한 눈에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이 단순한 ‘차 판매’를 넘어 브랜드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고객 체험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는 BMW가 다양한 체험관 구축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는 등 가장 적극적이다.

19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차는 해외서 스페이스마케팅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차별화된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6월과 9월 초 제네시스 브랜드의 스페이스마케팅 실무자를 총원했다. 브랜드개발 능력뿐만 아니라 부동산 입지 분석, 영여구사까지 가능한 인재

를 영입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간 마케팅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에는 폴크스바겐그룹의 스페이스마케팅 전문가 코넬리아 슈나이더를 고객경험본부 내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담당 상무로 영입했다.

현재 현대차는 국내외에서 6개의 모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개관한 현대모터스튜디오 서울을 시작으로 고양, 하남, 삼성 코엑스와 베이징, 모스크바에서 각종 테마의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현대 모터스튜디오는 단순히 차량 전시에만 그치지 않고 각종 행사나 미술 작품 전시로 복합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상설전시와 테마전시, 가이드투어, 테마 시승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고 자동차 탄생의 전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다.

현대차는 슈나이더 상무 영입을 통해 고객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맞는 체험 공간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국내뿐 아니라 모스크바와 베이징에도 모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 전시관 전경.

터 스튜디오를 개관해 체험형 공간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아차도 지난해 6월 브랜드 체험공간인 ‘비트(BEAT) 360’을 개관해 소비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개관한 지 일 년 남짓된 이 공간은 벌써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넘어섰다. 비트 360은 오감 체험을 중시하는 공간으로 스토닉 트레블 클래스, 캠핑 클래스, 심야책방 같은 각종 문

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입차 브랜드 가운데서는 BMW가 이 같은 ‘스페이스 마케팅’에 가장 적극적이다. 2014년 8월 인천 영종도에 축구장 33개 크기인 24만㎡의 크기로 오픈한 ‘BMW 드라이빙센터’는 이미 영종도의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았다.

BMW 드라이빙 센터는 일종의 ‘자동차 테마파크’다. 압도적인 크기에 2.6km

의 드라이빙 트랙을 갖춰 전문적 드라이빙도 즐길 수 있다. 시승뿐 아니라 자동차 문화 전시·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어린이들이 자동차의 원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니어 캠퍼스’도 운영하고 있어 어린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푸조·시트로엥도 제주도 중문 관광단지 에 약 2500평 규모의 자동차박물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푸조·시트로엥은 자동차박물관에 프랑스 현지에서 구하기 힘든 클래식카 20여대를 전시할 계획이다. 건물 외관에는 30m 규모의 에펠탑을 세워 랜드마크를 만들었으며, 푸조·시트로엥 브랜드의 역사를 알리는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이 단순히 대리점에서 차만 판매하던 시대는 지나갔다”며 “스페이스 마케팅과 같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 가치와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멕시코서 혁신 제품 대거 소개

칸쿤서 ‘LG 이노페스트’ 개최

LG전자가 17일부터 20일까지 멕시코 칸쿤에서 ‘LG 이노페스트’를 열고 혁신 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LG 이노페스트는 LG전자 고유의 지역 밀착형 신제품 발표 회로, 주요 거래선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과 축제의 장이다. LG전자는 올해 1월 중동과 아프리카를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의 거래선을 초청해 이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LG전자는 인공지능 LG 씬큐(ThinQ) 전시존을 별도로 마련하고 올레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제품들을 전시했다.

고객들은 인공지능 제품들과 함께하는 스마트홈을 직접 체험했다. 올레드 TV는 음성만으로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제어하고 정보 탐색이 가능하다. 인공지능 냉장고는 부족한 식자재를 주문하고, 인공



LG전자 모델이 ‘LG 올레드 TV AI 씬큐’를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지능 세탁기는 빨래에 맞는 최적 세탁코스를 추천해준다.

LG전자는 초프리미엄 ‘LG 시그니처’도 소개했다. ▲기술 혁신으로 이룬 압도적인 성능 ▲본질에 충실한 정제된 디자인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직관적인 사용성을 갖춘 초프리미엄 가전이다.

지난 달 진행한 LG 시그니처 중남미 론칭 행사에 참여했던 멕시코를 대표하는 건축가, 디자이너, 요리사 등도 참석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홀로그램 활용한 ‘AR 내비’ 개발 시동

(증강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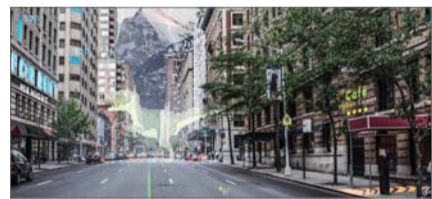
현대차 웨이러이에 전략적 투자

현대자동차가 홀로그램 증강현실(AR) 디스플레이 전문업체에 투자를 단행하고 차세대 내비게이션 개발에 드라이브를 건다.

현대차는 스위스 홀로그램 전문 기업 웨이러이에 상호협력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고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최첨단 비주얼 테크놀러지를 융합, 운전자에게 전혀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19일 밝혔다.

홀로그램이란 3차원(3D) 입체 영상 혹은 이미지로, 3D 전용 안경을 착용하지 않아도 생생한 영상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공상과학 영화 등에서 실물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영상을 보여 통화하는 장면으로 잘 알려진 기술이다. 포르쉐와 중국 알리바바 등도 이 회사에 투자를 단행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전 세계 홀로그램 디스플



웨이러이 홀로그램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이미지

레이 시장이 연평균 30% 성장세를 보이며 2020년에는 약 3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설립된 웨이러이는 스위스에 본사, 러시아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체 직원(170명)의 70% 이상이 연구인력으로 구성될 정도로 홀로그램 증강현실 분야 세계 기술력을 자랑한다.

차량용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은 기존 내비게이션 장치와 달리 전면 유리창 위에 도로정보가 표시돼 운전자가 전방만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준다. /양성운 기자

당신의 하루에 청량함이 가득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Chilsung Water

칠성사이다

추석 LTE 사용량 11% 예상... 이통3사, 비상근무 체제

SKT

트래픽 밀집지역 기지국 용량 증설

KT

고속도로 250여곳 집중관리 지정

LGU+

추석 네트워크 소통 비상체제 돌입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추석 연휴를 맞아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통신 네트워크 품질 관리에 나섰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통화품질 집중 감시 체계에 돌입한다. SK텔레콤은 약 2200명의 네트워크 전문인력을 투입해 '특별 소통 상황실'도 운영한다.

SK텔레콤은 추석 당일인 24일 귀향·귀성객들의 미디어 시청이 대폭 늘어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사용량이 시간당 최대 403TB(테라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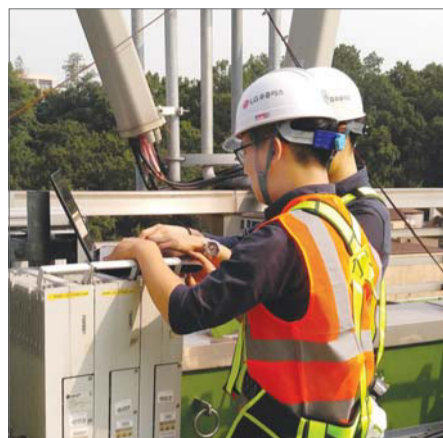
이는 평시 대비 11.3% 많은 수치로, 2



SK텔레콤 직원들이 경기도 성남시 '서울톨게이트' 인근 기지국 용량 증설 작업을 하고 있다.



KT 네트워크 전문가가 인천국제공항 인근 기지국에서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연휴 특별 소통 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각사

GB 용량의 영화를 약 20만6000편 내려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21일에 고객들의 음성 및 데이터 접속이 몰려 평시 대비 접속 시도 횟수가 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휴 기간 평시 대비 T맵 사용량은 51.5%, 해외에서 국제 로밍을 이용하는 고객 수도 15% 늘어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음성·데이터 이용 패턴을 고려해 고속도로·국도·공원묘

지·대형마트·공항 등 트래픽 밀집 지역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고, 와이파이 장비도 추가 설치했다. 트래픽 급증하는 지역에는 이동기지국을 급파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T맵, 옥수수 등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들의 서버 증설·사전 점검 조치도 완료했다.

KT도 추석 귀성과 귀경 인파로 인해 정체가 예상되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 250여 곳, 연휴기간 동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터미널, KTX와 SRT 역사 등 450여 곳을 포함한 전국 총 700여 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감시에 돌입한다.

KT는 연휴기간 동안 하루 평균 59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이 지역에 구축된 LTE 기지국 9000여곳과 3G 기지국 1700여곳을 24시간 관제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긴급 복구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KT는 명절 연휴 기간을 노린 디도스

(DDoS) 공격, '추석 선물', '안부 인사'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실시간 감시와 사전 차단 대응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KT는 연휴 기간 중 '올레 TV', '올레 TV 모바일'의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비디오(VOD) 시청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미디어 트래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데이터 처리량 확대와 부하분산 작업을 완료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추석 네트워크 특별 소통을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비상 상황에 긴급 대응하도록 마곡 사옥에 24시간 가동되는 종합상황실을 개소한다.

특히 추석 당일 고속도로·국도 등 정체 구간을 중심으로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나들목, 분기점 및 주요 휴게소, 공원묘지, 지역 행사지역 등 장비증설 및 이동기지국을 운영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명절 특성상 특정 지역의 데이터 트래픽 및 통화량 증가로 인한 장애 발생에 대비해 중요 거점 지역에는 평상시의 2배 수준의 현장요원을 증원, 상시 출동 준비태세를 갖췄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獨 세계 최대 철도박람회 참가

현대로템, 수주상담 등 해외사업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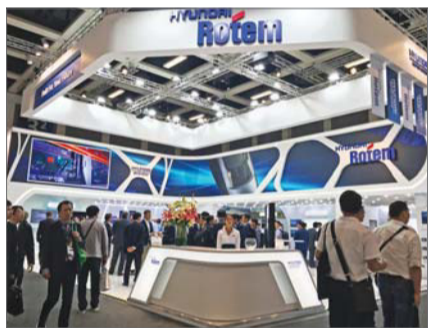
세계 최초 급곡선 주행장치 소개도

현대로템이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철도박람회에 참가해 해외사업 공략에 나섰다.

현대로템은 18~21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철도 박람회 '이노트랜스 2018'에 참가해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1996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돼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노트랜스 박람회는 전 세계 61개국에서 3000여개의 업체가 참가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유럽, 아시아, 미주 철도기관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며 향후 발주 예정 사업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수주 상담을 한다. 또 독일 철도차량 동력시스템 업체 호이트(Voith), 프랑스 철도차량 부품 업체 페이블리 트랜스포트(Faiveley Transport) 등 글로벌 협력사 관계자들을 만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사업 공략을 위해 전시관 내에 트램, 고속철, 무인운전 차량 홍보부스를 각각 마



18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이노트랜스 2018(InnoTrans 2018)에 참가한 현대로템 전시관 전경.

련하고 차량별 수주 실적도 홍보한다.

기술력 홍보를 위해 마련된 부스에선 지난 6월 현대로템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급곡선 주행장치가 소개된다.

급곡선 주행장치는 열차의 바퀴에 해당하는 주행장치를 개선한 것으로, 주행 가능한 곡선 반경을 기존 25m 이상에서 15m까지 줄여 복잡한 도심에서의 트램 노선 구축에 유리한 것이 강점이다.

/양성운 기자 ysw@

SKT-AT&T 등 글로벌 통신사

5G 장비 연동 검증규격 마련

SK텔레콤은 AT&T, 차이나모바일, 오렌지 등 글로벌 통신사와 함께 5G 장비 간 연동을 수월케 하는 '5G 장비 연동 검증 규격'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5G장비 연동 검증 규격에는 각기 다른 장비제조사 개발한 5G 기지국·교환기·단말기간 상호 연동성을 시험하고, 개선점을 빠르게 찾아내기 위한 분석 방법 등이 담겨 있다.

이 규격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설계 단계에서 5G장비간 연동성을 시험하며, 최상의 연동 방식을 찾아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를 통해 A사 기지국, B사 교환기, C사 단말기 등 복수의 장비제조사 제품으로 5G망을 구성해도 안정적인고 높은 품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단말 제조사는 통신장비 연동을 위해 시험해야 할 요소가 줄어든다.

SK텔레콤은 차세대 인프라 방향을 논의하는 NGMN(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의 상호연동 프로젝트 의장사로, 지난 1년간 회원사들과 함께 효과적인 검증 방안을 연구해왔다. SK텔레콤은 올해 4분기부터 이 규격을 바탕으로 상용 장비 연동 시험에 나설 예정이다.

국제 표준 반영도 추진한다. 5G장비 연동 검증 규격은 3GPP가 지난해 12월 정한 5G-LTE 복합 표준(NSA, 논스탠드얼론)에 기반한다. SK텔레콤 등은 연동 시험을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을 표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삼성 플립'으로 싱가포르에서 스마트 스쿨 구축

(디지털플립차트)

삼성전자, 교실·실험실 등에 도입

최신 통계 동향·자료 실시간 공유

삼성전자가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에 디지털 플립차트인 삼성 플립을 공급하며 스마트 스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는 1993년 한국과 싱가포르 정부의 인가를 받아 개교했다. '삼성 플립'이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스마트 기기로서 학생과 교사 간에 보다 원활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교실, 도서관, 실험실 등 학교 여러 곳에 도입했다.

삼성 플립은 55형 UHD 해상도 디스플레이와 다양한 펜 기능을 통해 직관적인 판서 기능을 갖춘 차세대 디지털 플립차트다. 미러링 기능을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에 있는 수업 관련 자료를 손쉽게 불러올 수 있다. 수업에 필요한 동영상, 이미지 등을 선명한 UHD 화질로 보여줄 수 있어 학생들의 수업 흥미도를 높일 수 있다.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즉시 이메일이나 클라우드를 통해 학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어 학생들이 필기 부담을 줄이



삼성전자가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Singapore Korean International School, SKIS)에 디지털 플립차트 '삼성 플립(Samsung Flip)'을 공급하며 스마트 스쿨 사업에 앞장섰다. /삼성전자

고 보다 집중력 있게 수업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해당 학교의 수학 수업 시간에는 통계 단원의 복잡한 표나 그래프를 이용할 때 교과서 디지털 파일을 직접 불러와 화면에 띄운다. 통계청 등 다양한 웹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최신 통계 동향과 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학생들과 공유하는 등 생동감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경제 시간에는 교과서를 넘겨 다양한 글로벌 경제 사이트에 접속해 세계 경제 관련 최신 지표와 이슈를 삼성 플립에 띄

워 학생들과 토의하고 설명함으로써 수업 흥미도와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

최대 4명까지 동시 필기가 가능한 이 제품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주고 바퀴가 달린 이동식 스탠드로 교실과 장소를 옮겨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그룹의 창의 활동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인체 공학 설계를 통해 가로 세로 화면 전환이 가능하고, 스탠드 거치대의 높이조절이 가능해 교사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사용이 가능하다.

/안병도 기자 catchrod@

KT, 아프리카TV와 5G 개인미디어 서비스

KT는 국내 개인방송 서비스 1위 사업자인 아프리카TV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5G 기반 개인미디어 서비스 제공에 협력한다고 19일 밝혔다.

아프리카TV 본사 사옥에서 열린 '5G 차세대 개인방송 공동사업'을 위한 KT-아프리카TV 업무협약식'에는 KT 마케팅부장 이필재 부사장, 미디어사업본부장 유희관 전무,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이사 등 양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아프리카TV는 누구나 쉽게 실시간 방

송을 할 수 있는 국내 1위 개인방송 서비스 사업자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5G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방송 서비스 ▲올레tv와 올레tv모바일에서 아프리카TV의 서비스 제공 등을 진행한다.

양사는 서울 송파구 아프리카TV 오픈 스튜디오 잠실점에 KT 10기가 아레나를 오픈한 바 있다. 올레tv 아프리카TV스타리그(ASL) 시즌5 결승전을 올레tv와 올레tv모바일에서 실시간 중계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해왔다. /안병도 기자



협약식에 참석한 양사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좌측부터) KT 이성한 미디어사업담당, 아프리카TV 정찬용 부사장, KT 이필재 마케팅부장,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이사, KT 유희관 미디어사업본부장, 아프리카TV 이민원 콘텐츠전략사업본부장. /KT



The Banker誌 (더 뱅커지) '2017년 아시아 최우수 은행' 선정



기업대출의 맞춤공식 우리CUBE론

Customization / Unification / Benefit / Efficiency

주거래 기업도 첫거래 기업도 우리만의 맞춤형 혜택으로
더 큰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WOORI BANK**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이나 고객센터, 우리은행 홈페이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1599-5000, 1588-5000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

2018.03.19 준법감시인-0577 심익필(유효기간: 2019.03.31)

경제동맥의 불순물 제거하라... 위폐 감별 위해 CSI장비도

나는 뱅커다

이호중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장

대응센터, 국내 최고의 역량 보유 금융거래 안정성 위해 위변조 색출 은행권, 감별에 과감한 투자 필요

“자본시장에 건강한 혈액을 공급하고 화폐의 신뢰를 보증한다. 우리 부서(위변조 대응센터)의 모토다. 위조지폐 감별은 자본시장에서 화폐 액면 그대로의 값어치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지폐 한 장의 신뢰를 지켜내는 것에서 크게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KEB하나은행 이호중 위변조대응센터장의 말이다.

이호중 위변조대응센터장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위조지폐(이하 위폐) 감별 전문가다. 1995년 외환은행에서 위폐감별을 시작한 후 2001년부터 13년간 국가정보원에서 금융범죄분석담당관을 지냈다.



19일 메트로신문과 만난 이호중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장은 위조지폐 유통은 국가와 실물경제에 거대한 파급을 끼쳐 과거 물물교환의 시대로 역행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은행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의 위조방지실 무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 센터장이 맡고 있는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는 국내 최고의 위폐감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 센터장은 “하나은행은 외환은행 시절부터 위폐 전담인력을 두고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며 “2014년에 개설된 하나은행의 위변조대응센터는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성능 기자재를 구비했고 과학수사에 쓰이는 CSI분석 장비도 갖춰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자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에 ‘불순물(위조지폐)’이 섞인다면 국가와 실물경제에 거대한 파급을 미쳐 과거 물물교환의 시대로 역행할 수도 있다”며 “실제 납미 일부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위폐는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 외화 위폐유통량은 300만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 위폐 적발량의 경우 미 달러화가 대략 70%를 차지하는데 미 수사당국은 지난해 약 7500여만달러 규모의 미화 위폐를 적발한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국내에서 발견되는 원화 위폐의 경우 연평균 1억5000만원 안팎이다. 연평균 미달러화 환산 200억달러가 거래되는 외화

위폐의 경우 연 평균 15만달러를 웃돈다.

이같이 위폐유통으로 금융거래 리스크가 국내시장에 잠식된 상황에서 은행권의 위폐 대응 능력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본점으로 보내온 화폐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일평균 50만장을 검수중이며, 실시간 감정을 의뢰해 오는 건수도 일평균 30여건에 달한다.

이중 위폐로 확인돼 현장에서 범인검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센터장은 “지난 5월에는 인천지점에서 미 달러화 50장을 환전하려던 지폐가 의심스러워 원격 감정을 진행한 결과 위폐로 적발해 범인을 현장 검거했다”며 “특히 범인이 지난해 서울에서 위폐를 유통시키다 검거된 조직의 유사범으로 밝혀져 공급체인 외국인 검거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 달러화 위폐중 가장 정교한 초정밀 위조미화인 ‘슈퍼노트’의 경우 국가급의 조폐시설을 갖춘 조직에서만 만들 수 있어서 미 대사관을 통해 수사당국 인사가 당행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정보협력중이며 특히 지난해 11월 하나은행이 세계 최초로 발견한 신종 슈퍼노트의 경우, 미국은 물론 우리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Intropol)에도 제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가오는 추석과 이어지는 중국의 국경절에는 위폐 유입이 증가할 수 있다.

이 센터장은 “국경절을 맞아 중국 방문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편승한 위폐 유입 우려가 있어 경계심을 갖고 근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센터장은 “하나은행 뿐만 아니라 시중 대형은행들이 대량의 지폐를 수급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 모두가 위폐감별 기술과 성과에 과감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센터장은 “최근 은행연합회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 물론 시중은행에서 노하우를 공유하지는 요청이 있어 은행권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나갈 예정이며, 원스탑뱅크 추세에 맞춰 일선 창구에서도 위폐 감별이 가능하도록 기술 개발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삼성화재

DJSI 3대 지수 동시 획득

삼성화재는 2018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국내 보험사 중 유일하게 월드, 아시아퍼시픽, 코리아3대 지수를 모두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DJSI는 매년 미국 S&P 다우존스사와 스위스 로베코셈사가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하는 지속가능성 지수다.

이 지수는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2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월드 지수’와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상위 600대 기업을 평가하는 ‘아시아퍼시픽 지수’, 국내 상위 200대 기업을 평가하는 ‘코리아 지수’로 구성돼 있다.

삼성화재는 인재개발, 환경경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5년 연속 세계 최고 등급인 월드 지수를 획득했으며 아시아 퍼시픽 지수는 6년 연속, 코리아 지수는 10년 연속 편입됐다.

올해 국내 보험사 중 월드, 아시아퍼시픽, 코리아3대 지수를 모두 획득한 보험사는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김희주 기자 hj89@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추석특집 소셜라이브 출연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윤석현 원장이 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방송에 출연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소셜라이브 ‘나우(Now)’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이다. 윤 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추석 금융 꿀팁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시청자 질문에 답변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방송은 오는 21일 오후 1시 32분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며, 방송 후에는 네이버 및 유튜브에도 게시된다. /안상미 기자

“퇴직연금 중도해지 말고 연금으로 수령”

금감원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 발간

퇴직연금은 중도에 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함께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적용금리나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를 따져 비교, 선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 가이드북 ‘행복한 동행, 퇴직연금’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운용주체는 가입자 자신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는 무려 90%에 달한다. 운용지시권자가 본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운용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운용상품(금융상품)이 만기가 오면 단

순히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기보다 상품을 변경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이라도 상품 특성을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은행 예·적금이나 원리금보장 보험상품, 국채 등 상품마다 금리나 중도해지 시 적용이율 등이 다르다.

퇴직연금 수익률과 수수료도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금감원은 퇴직급여는 중도해지하지 말고 가급적 연금으로 수령하라고 조언했다.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되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이드북을 통합 연금포털과 퇴직연금 종합안내 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1@



지난 18일 이대훈 NH농협은행장(가운데)이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NH통합IT센터를 찾아 주요시스템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NH농협은행장, 연휴 대비 IT센터 방문

직원들 격려·주요시스템 점검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이대훈 은행장이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NH통합IT센터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장은 추석명절 연휴기간을 앞서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상근무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고, 주요 시스템을 점검했다.

명절연휴를 전후로 은행업무가 집중되

고, 비대면 거래는 늘어난다. 이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해 주요시스템의 운영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거래집중 등의 비상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

이 행장은 “추석명절 연휴에도 고객편의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고객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C제일은행, 입출금과 정기예금이 만났다

편리함·수익성 묶은 ‘마이런통장 1호’

SC제일은행은 입출금통장의 편리함과 정기예금의 수익성을 하나로 묶은 상품인 ‘마이런통장 1호’가 최고 연 2.1% (이하 연이율, 세전)의 금리를 제공한다

고 19일 밝혔다. 마이런통장 1호는 최대 6개월까지 예치기간에 따라 최저 연 0.1%~최고 연 2.1%의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통장이다. 금액 제한 없이 여유 자금을 예치할 수 있고, 자금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다. 정기예금은 만기 이전에 자금을 인출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지만 마이런통장 1호는 각 입금 건별로 예치기간이 길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스텝업(Step-up) 구조’로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파킹통장’이다.

마이런통장 1호는 입금 건별로 예치기간이 30일 이하일 경우 연 0.1%, 31~60일 연 1.05%, 61~90일 연 1.3%, 91~120일 연 1.55%, 121~150일 연 1.8%, 151~180일 연 2.1%의 금리를 제공한다. 입금 건별로 전체 예치기간에 대한 최고 금리를 일괄



적용한다. 예금을 찾을 때 먼저 입금된 금액이 먼저 인출되는 선입선출방식이 적용되므로 출금거래 건수가 적을수록 더 높은 금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이런통장 1호는 신규일로부터 181일째 되는 날 입금 건별로 예치기간에 따라 각각 전일까지의 이자가 계산되어 입금 후 마이심플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마이심플통장은 일별 잔액 300만원 초과 금액에 연 1.1%의 금리를 제공하는 수시입출금통장이다.

마이런통장 1호의 판매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 시에 판매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유재희 기자

우리은행 ‘우리아이 미래행복 이벤트’

올해 말까지 아동수당 지급고객 대상

우리은행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리아이 미래행복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우리은행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부모나 자녀 명의의 입출금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지급 받고, 자녀명으로 청약종합저축이나 적금을 가입하면 추첨을 통해 디트로네 유아용 전동자동차(1대), 킨즈무브2 웨건(20대)을 지급한다.

자동이체 등록 후 12월 말까지 30만원 이상 납입하면 자동 응모된다. 또 매월 100명을 추첨해 총 400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바우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우리아이 행복프로젝트’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청약종합저축 또는 적금 가입시 가능한 금융바우처(1만원)를 지원한다. 영유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용 가능한 금융바우처(1만원)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다. /안상미 기자

없어서 못사던 B급 회사채 시장에 찬바람

美中 무역전쟁에 금리우려... 'B급' 됐네

두산중, 수요예측서 주문 없어
1.5년물 발행 않고 2년물 발행

플라리스슈핑, 300억 수요예측
260억 참여... 100% 소화못해

발행 규모 감소·금리 급등에
일부 '신용경색' 현상 나타나

두산중공업은 최근 3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위해 사전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 매수 주문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 결국 1.5년물은 아예 발행하지 않고 2년물 발행을 50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해당 회사채는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400억원, 키움증권은 100억원씩 각각 떠안는다.

플라리스슈핑(BBB+)은 300억원 규모의 수요예측에 260억원만 참여했다. 물량이 모자라서 못사던 회사채가 발행 시장에서 100% 소화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회사채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글로벌 금리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데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극단적으로 치달자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우려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부진한 수요 탓에 올 들어 국내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규모도 크게 줄었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두산그룹이 수요예측에서 미달을 기록한 데는 재무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두산의

〈회사채 수요예측 결과〉

(단위: 억원, bp)

수요예측일	종목명	신용등급	발행만기	금액		참여금액	경쟁률
				발행	예측		
2018-09-10	SK텔레콤74-1	AAA	3년	1,000	800	5,200	6.50
2018-09-10	SK텔레콤74-2	AAA	5년	1,500	700	5,400	7.71
2018-09-10	SK텔레콤74-3	AAA	20년	500	500	1,900	3.80
2018-09-10	한진85	BBB+	2년	400	400	900	2.25
2018-09-10	한국토지신탁37	A0	3년	600	600	1,640	2.73
2018-09-10	세아창원특수강36	A+	3년	900	500	3,250	6.50
2018-09-11	미래에셋캐피탈25-1	AA-	3년	1,000	600	2,500	4.17
2018-09-11	미래에셋캐피탈25-2	AA-	5년	1,000	400	1,400	3.50
2018-09-11	현대일렉트릭2-1	A-	2년	750	700	750	1.07
2018-09-11	현대일렉트릭2-2	A-	3년	450	300	650	2.17
2018-09-11	현대일렉트릭2-3	A-	3년	800	500	800	1.60
2018-09-11	금호석유화학152	A-	2년	700	500	3,850	7.70
2018-09-11	포스코건설55	A0	2년	600	600	3,910	6.52
2018-09-12	SK루브리컨츠8-1	AA0	3년	1,200	700	3,800	5.43
2018-09-12	SK루브리컨츠8-2	AA0	5년	1,200	800	4,800	6.00
2018-09-12	플라리스슈핑24-1	BBB+	1년	500	300	750	2.50
2018-09-12	플라리스슈핑24-2	BBB+	2년	300	300	260	0.87
2018-09-13	KDB생명보험(후순위)7	A+	10년(5년)	2,200	2,200	1,570	0.71
2018-09-13	두산중공업56	BBB+	2년	500	300	410	1.37
2018-09-13	여천NCC70-1	A+	3년	1,400	1,000	3,630	3.63
2018-09-13	여천NCC70-2	A+	5년	600	500	2,580	5.16
2018-09-14	오케이캐피탈284	BBB+	1년2개월	260	100	300	3.00

자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하나금융투자

주력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은 보유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등 재무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

올 초까지만 해도 두산건설, 두산엔진, 두산인프라코어(이하 인프라코어)를 지배하던 중간 지주회사 성격의 기업이다. 그룹 재무부담이 본격화하던 2010년 대부터 계열 지원에 나서면서 재무 부담이 커졌다. 두산건설의 약 1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으며 인프라코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이기도 했다.

국내 유일 원자력 주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은 안정적인 원전 수주로 지난 4년(2014~2017년)간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꾸준히 기록했다. 하지만 건조한 이익 기반이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발전설비 융합 부진에 노출됐다. 총차입금은 2014년 말 2조75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4조9200억원으로 2조원 이상 급증했다. 부채비율도 같은기간 122.6%에서 170.7%로 높아졌다. 신용등급도 'BBB+'로 추락했다.

내달 규제 피한 수도권서 1만2400가구 붓물

의정부 2993·화성 2666 가구 등
"분양 성수기... 청약 고려해볼 만"

오는 10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1만 2400여가구가 쏟아진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수요가 감소할 태세다. 비규제지역 내 신규 분양 단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부동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추석 이후 분양 성수기에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며 "의정부나 김포, 부천 등 비규제지역에서의 청약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1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추석 이후 10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1만 2388가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의정부시 2993가구 ▲경기도 이천시 340가구 ▲경기도 광주시 447가구 ▲경기도 화성시 2666가

〈9·13 발표 후 기대되는 10월 수도권 비규제지역 신규분양 단지〉

사업명	위치	전용면적 (㎡)	총가구수 (일반분양)	건설사
탐석센터힐자이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49~105	2573(832)	GS건설
가능2구역 대삼(가칭)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미정	420	포스코건설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59~134	2666	HDC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광주금호리첸시아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미정	447	금호건설
이천중포대원카타빌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미정	340	대원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인천시 서구 가정동	75~102	2378	SK건설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72~84	1168	호반건설
검단신도시 유승한내들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미정	938	유승종합건설
인천주안7구역 센트럴(가칭)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	미정	1458	동부건설

*위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부동산 114 및 각 사

구 ▲인천 서구 4484가구 ▲인천 미추홀구 1458가구 등이다.

지난해 8·2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년간(2017년 8월~2018년 8월) ▲김포시 8.83% ▲안양시 10.8% ▲의왕시 9.5% ▲용인시 5.17% ▲수원시 5.51%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랐다. 대책발표 이전

1년간(2016년 8월~2017년 7월) 오른 것과 비교하면 각각 두 배 가량 상승한 셈이다.

GS건설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241번지 용현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탐석센터힐자이' 2573가구 중 49~105㎡ 832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 단지는 신

설되는 7호선 연장 탐석역을 이용할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오는 10월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에서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59~134㎡ 2666가구를 분양한다. 1호선 병점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금호건설은 10월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서 '광주금호리첸시아' 447가구를 분양한다. 인근에 경안근린공원, 현충탑, 광주종합버스터미널도 인접해 있다.

SK건설은 인천시 서구 가정동 일대에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75~102㎡ 2378가구를 공급한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과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의곽순환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도 가깝다. 호반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 b15-2블록에서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72~84㎡ 1168가구를 선보인다.

이규성 기자 peace@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양주 옥정·인천 검단 2224가구 공급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양주 옥정, 인천 검단 2개 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24가구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이하, 일반공급 95%이하)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지침엔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사업자가 청년층(만 19~39세 1인 가

구)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으로 계획하도록 했다.

양주 옥정 A19-2블록 7만8440㎡에는 전용 60~85㎡ 공동주택 1304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사업지 인근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2년 예정), 7호선 옥정역(2024년 개통 예정) 등이 있어 서울권 접

근성도 높다.

인천검단 AB5블록 4만4971㎡에는 전용 60~85㎡ 공동주택 920가구가 조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을 통해 서울 출퇴근길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LH는 오는 20일 공모 공고하고, 오는 11월 22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채신희 기자 csh9101@

증권 다이제스트



NH투자증권-오이뮤

QV ETN 매치박스 2018

NH투자증권은 디자인스튜디오오이뮤와 플라보레이션으로 'QV ETN 매치박스 2018'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증권회사의 상장지수펀드(ETF)로 시장에 알려진 상장지수채권(ETN)은 2014년 개장 이래 1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모은 자본시장의 새로운 기대주이다. NH투자증권의 QV ETN은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담은 '그릇'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

프로젝트 파트너인 오이뮤는 과거와 현재의 가치를 잇는 것을 모토로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김문호 기자

현대차증권

500억 규모 DLS 공모

현대차증권은 오는 21일 오후 1시까지 총 500억원 규모의 원금비보장형 파생결합증권(DLS) 상품 1종을 공모한다.

'현대차증권 DLS 79호'는 원유를 대표하는 지표인 WTI(서부텍사스유)와 Brent(브렌트유)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원금비보장형 상품이다. 발행 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회사가 주어지며 최고 연 7.20%의 수익을 지급한다.

이번 공모상품은 금융투자상품 분리제에 따라 높은 위험으로 분류되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으로, 현대차증권 전국 각 지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DB금융투자

ELS 1종 등 총 2종 판매

DB금융투자는 오는 28일까지 코스피 200(KOSPI200) 레버리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추가연계증권(ELS) 1종 등 총 2종의 상품을 판매한다.

KOSPI200레버리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B 해피플러스 추가연계증권(ELS) 제2039회'는 3년 만기 상품으로 4개월 주기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 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최초 준가격의 95%(4개월), 90%(8,12개월), 88%(16개월), 85%(20,24개월), 80%(28개월), 75%(32개월) 이상이면 원금과 연 6.48%의 수익이 지급된다.

손영지 기자

‘진퇴양난’ 빠진 이주열... 금리 올릴수도, 놔둘수도

〈한국은행 총재〉

집값 급등·가계부채 생각하면 ‘인상’
고용 부진·기업투자 생각하면 ‘동결’

금융시장 “금리인상 시기 이미 놓쳤다”
글로벌IB, 한은 10월 금리 인상 전망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0개월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집값 급등, 가계부채 증가, 한·미 간 금리 격차 등을 생각하면 이미 금리를 올렸어야 하지만 고용 부진, 기업 투자 감소, 소비 둔화 등 지지부진한 경제 상황을 보면 선뜻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압박하고 있지만 물가가 생각 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 명분마저 약해진 상태. 여기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발 관세 폭탄까지 터지면서 정부와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9%’ 달성도 장담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3일 이낙연 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에 다음 날인 14일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1.960%로 전일 대비 3.9bp(1bp=0.01%포인트) 올랐다.

이 총리는 ‘금리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

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했다.

현재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11월 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후 연 1.50%로 10개월째 동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금리 인상 당시 한은은 “대출금리를 1%포인트 올려도 가계와 기업 모두 감내할 수 있다”며 경제 상황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불과 1년도 안 돼 상황은 바뀌었다.

올해 들어 투자, 소비, 고용은 역주행했다. 경기 둔화로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를 밑돌았다.

경제 성장의 한 축이었던 투자 부문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 지난 4월 한은이 발표한 ‘2018년 2/4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국내

총투자율은 31%로 전기(31.4%)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2분기 설비투자액은 39조126억원으로 전기 대비 5.7%나 줄었다. 감소율만 따지면 2016년 1분기(-7.1%) 이후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설투자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2.1% 줄어든 62조35억원으로 집계됐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하는데 머물렀다. 이는 한은이 7월 내놓은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2.9%)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3000명에 그쳐 8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취업자수 5000

명에 이어 더욱 악화된 수준을 기록하면서 ‘고용쇼크’는 2달 연속 계속되고 있다. 이미 설비·건설투자가 악화된 상황에서 고용부진은 소비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터지면서 연 2.9% 성장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정부와 한은은 올해 상반기 2.9%, 하반기 2.8% 등 올해 2.8%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지난 7월 당초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9%로 내린 바 있다.

지난 17일 미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오는 24일부터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같은 날 중국은 6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해 5~10%의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맞대응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다.

금융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를 이미 놓쳤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급등하고 가계부채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생각하면 이미 금리를 올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를 올리자니 경기 악화가 걱정되고 그렇다고 계속 묶어둘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JP모건, 씨티, 노무라, 바클레이스, HSBC 등 글로벌 IB(투자은행)는 한은이 이런 딜레마 상황에도 10월이나 11월 금리를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무라는 “한은이 금융 불균형 및 주택시장과 열을 타개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긴 하지만 정부 당국이 얼마 전 새롭게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을 평가할 때까지 기다려 볼 것”이라며 금리 인상 시기를 11월로 점쳤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G2 무역분쟁 격화... 韓증시 떠나는 외국 자금

코스피 약보합세·코스닥 소폭 하락 마감
외국인, 이달에만 1.4兆 주식 순매도 중

G2(중국·미국) 무역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하고 있다. 미국은 9월과 12월에 금리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된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외국인 자금 유입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상승 동력을 잃은 한국 증시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약보합세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소폭 하락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심화되면서 투자심리가 악화된 영향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행정부는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3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24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한 후, 연말 또는 내년 1월부터 25%로 올릴 예정이다. 중국

도 즉각 반응했다. 미국산 제품 600억달러에 대해 5~10%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외국인 자금은 신흥국 시장을 떠나 달러 등 안전자산으로 향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되자 18일(현지시간) 뉴욕외환시장에서 주요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가치를 보여주는 미국 달러 인덱스는 전일 대비 0.13% 오른 94.64를 기록했다.

아울러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인 이달에만 1조 400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다. 지난 8월 1조6528억원 순매수세에서 바로 매도세로 돌아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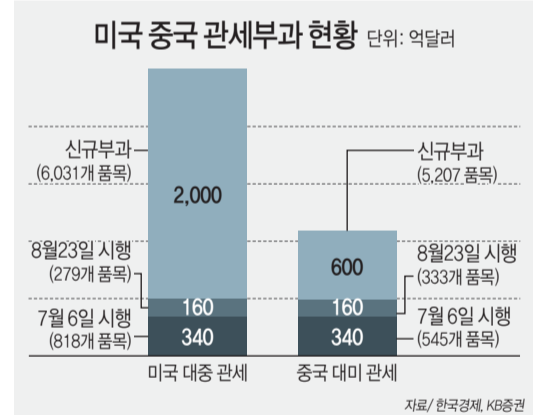
금리 인상 우려도 외국인이 자금 유입을 망설이는 요소다. 미국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블룸버그 기준 99.8%다. 문제는 12월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12월에도 추가 인상을 결정하면 한국과 미국은 1% 금리차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은 달러 강세를 유도한다. 외국인 자금은 통화가치가 높을 쪽으로 이동

하기 때문에 자금 유출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익도 기대할 수 없으니 투자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해 미국의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외국인인 국내 증시에만 114억5000만달러(약 12조 8000억원)를 투자했다. 이는 국내 증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외국인 자금의 관망세는 짙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상 카드를 모두 소진한데다 무역분쟁이 오히려 12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는 점이다.

유동원 키움증권 글로벌전략팀 이사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달러 약세, 위안화 강세다. 하지만 무역분쟁이 오히려 달러 강세를 유인해 금리인상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가 원하는 것과 시장의 흐름이 맞지 않다”고 분석했다.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신흥국 시장에 대한 매수 판단을 세우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외국인 투자자금은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전후에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후 외국인인 순매수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때 증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형철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과 중국은 관세인상 카드를 모두 소진했다”면서 “무역분쟁 우려가 이미 증시에 다 반영돼 있어 향후 무역 분쟁으로 인한 자본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외국계 금융사 간담회 참석

“불합리 규제 완화할것... 도약 기회 되길”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취득한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특성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금융시장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외국계 금융사에게도 소비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

용소비자 보호가 글로벌 금융산업의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으로 자리매김 했다”며 “모든 영업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를 살피고,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동반성장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윤 원장은 “최근 남북경협 가능성이 커지면서 동북아 금융중심지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외국계 금융사에도 값진 도약의 기회가 되고 외국계 금융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외국계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회사와 한국 금융시장 간 동반 성장의 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24개 외국계 금융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은행권, 사회적 경제기업에 1718억 공급

사회적금융 추진을 위해 은행권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718억원의 자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회를 위한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선 지난 4월 개최된 제1차 사회적금융 협의회에서 마련한 과제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진과정에 서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당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로 관계기관의 개별과제 추진현

황 점검 및 사회적금융 데이터베이스(DB) 등 인프라 구축 등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사회적금융 추진을 위해 은행권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총 1718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이는 지난해 총 지원 실적인 2527억원의 68%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자금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여 총공급규모는 작년보다 약 20~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현재 사회적금융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겉에는 ‘made in 코리아’, 속으론 ‘made by 인텔칩·MS’

흔들리는 IT코리아

⑥ 노트북

글로벌 시장서 점유율 높지 않아
차별성 둘 곳은 외관·짜임새·가격차
앱·클라우드·콘텐츠 등 전략 필요



왼쪽부터 삼성노트북9, LG그램, 애플 맥북프로2018.

/삼성전자·LG전자·애플 홈페이지

매년 봄 가을 신학기가 되면 특별히 구입을 염두에 두는 대표적 IT제품으로 ‘노트북’이 있다. 학생과 직장인에게 노트북은 필수도구에 가깝다. 그런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노트북 제품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까.

2016년 12월 미국 소비자 전문매체 컨슈머리포트는 15~16인치 노트북 PC 평가에서 삼성전자의 15인치 노트북9을 77점으로 1위로 올렸다. 이 제품은 애플 맥북 프로를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제치고 1위가 됐다. 올해 5월 30일 컨슈머리포트는 LG전자 2018년형 올뉴그램 15.6인치 모델에 노트북 제품 평가에서 가장 높은 84점을 매기며 1위로 평가했다. 역시 2위는 맥북 프로였다.

이후 LG전자는 올해 7월에 LG 그램

13, 14, 15 모델이 모두 컨슈머리포트 노트북 순위 1위를 달성했다. 하지만 막상 국내 노트북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지 않다.

트렌드포스가 발표한 지난 1분기 노트북 출하량에 따르면 1위는 HP로 24.1%, 2위 DELL은 16.6%다. 5위는 애플로 7.7%다. 국내 주요 PC 제조업체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포함한 나머지 회사들의 점유율은 2016년 13.8%, 2017년 13.2%, 2018년 10.8%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품 자체가 많이 팔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삼성전자 측은 “수년 전부터 해외 PC 시장에서는 폭넓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LG전자 관계자는 “해외 시장 진입한 기간이 짧고, 확대해 나가는 과정

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국 노트북의 경쟁력이 그리 높지 않다는 평가다.

“한국 노트북 제품이 적당한 만들새로 높은 평가를 얻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안쪽을 살펴보세요. 핵심 연산을 책임지는 CPU는 인텔이 만든 로드맵을 그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인텔칩을 쓰지 않는 순간 거의 모든 사용자가 제품을 사지 않습니다. 운영체제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 없이는 어떤 구매도 끌어내지 못해요.”

업계전문가는 이런 현실을 냉정하게 지적했다.

“맥북은 아이폰과 비슷하게 아예 다른 시장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핵심부품을 바꾸거나 값을 올린다고 해도 쉽게 사용자들이 떠나지 못해요. 하지만 나머지 노

트북 제품은 다릅니다. 한국이나 미국에서 만든 고급 제품인데, 대만이나 중국에서 만든 중저가 제품인데 사용자들은 CPU와 운영체제를 가장 먼저 봅니다. 결국 차별성은 외관과 부품 짜임새나 가격차이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뒤떨어지면 사용자는 언제든 다른 제품으로 옮겨갈 수 있죠.”

현재 한국 노트북이 주된 경쟁력으로 삼는 부분은 가벼운 무게와 긴 배터리 유지시간이다. 업계에서는 LG전자가 LG화학에서 나오는 소재 기술과 배터리 성능을 원천경쟁력으로 가진 점을 주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SSD,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부품을 내부에서 공급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경쟁사보다 가격 설정 등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이런 부품은 독점적으로 공급되지 않으며 사용

자의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닌 해석이다.

물론 이런 구조에 부정적 면만 있는 건 아니다. 작년 8월 22일 포브스는 애플이 신형 맥북 시리즈에 인텔 8세대 CPU가 탑재되지 못한 점을 들어 “프리미엄 노트북의 수요층을 대거 놓칠 수도 있는 위기”라고 보도했다. 완벽주의를 토대로 오랜 설계와 기획기간을 거쳐야 하는 애플에 비해 삼성전자는 인텔의 발표가 나온 직후 하반기 PC 주력상품 노트북9에 최신 CPU를 탑재한 라인업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최신기술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 노트북이 완벽하게 프리미엄 제품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2012년 미국 잡지 PC월드 “애플의 성공을 모방하려는 기술 기업들은 앱, 클라우드, 콘텐츠, 기기 등 4개의 영역에 초점을 맞춘 전략을 고안했다. 애플의 경쟁사들은 이런 마법 같은 공식을 최근에는 발견했으며 지금에서야 자신들만의 버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노트북이 과연 이런 공식을 얼마나 달성했는가 하는 부분을 돌아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양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지난해 축산물·자동차 분야 ‘리콜’ 늘었다

공정위 ‘2017년 리콜 현황’ 발표 자동차 업계 자진 리콜로 건수 ↑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사업자가 교환·환급하는 ‘리콜’이 작년 축산물과 자동차 분야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리콜 현황’을 19일 발표했다. 작년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404건으로, 전년보다 199건(12.4%) 줄었다.

리콜 건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 약제에 대한 대규모 리콜 명령(561건)을 내린 2014년 1752건으로 크게 증가하고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작년 리콜 유형을 보면 리콜 명령이

701건(49.9%)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 리콜 529건(37.7%), 리콜 권고 174건(12.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자진 리콜은 2015년 536건, 2016년 556건 등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결함제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기업의 노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58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287건, 식품 228건, 의약품(한약제 포함) 100건, 축산물 96건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축산물과 자동차는 리콜이 늘었지만, 의약품과 식품은 감소했다.

일반 공산품은 세정제나 코팅제 등 리콜이 다소 증가했지만 제품안전기본법

상 안전성 조사 관련 리콜 조치 건수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6.1% 줄었다.

자동차는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함 등으로 업계의 자진 리콜이 늘면서 전년보다 리콜 건수가 18.6% 늘었다.

식품은 첨가물 기준 위반 건수가 줄면서 전년보다 32.1% 감소했다. 의약품도 41.2% 줄었다.

축산물은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 등으로 리콜 명령이 크게 늘어서 전체 건수는 74.5% 증가했다.

리콜 근거 법률을 보면 리콜을 규정한 16개 법률 가운데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2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동차관리법(18.7%), 식품위생법(15.2%), 소비자기본법(12.5%) 순이었다.

공정위는 작년 리콜과 관련한 개선 사항으로 정보 제공과 피해 구제 신청

이 가능한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애플리케이션 ‘행복드림’) 개선을 꼽았다.

이를 통해 리콜 정보 제공 분야를 식품·공산품뿐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등 9개 품목으로 넓혔다.

아울러 작년 10월에는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복드림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통합 리콜 정보를 볼 수 있으며 품목별 리콜정보는 각 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소비자도 위해 물품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소관 부처에 적극 신고해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영 기자 grandtrust@

부동산 자전거래 방지 위한 허위계약 신고방지 법안 발의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부동산 자전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전거래는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19일 시장 거래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허위계약 신고를 막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격과 동향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한 뒤 계약해지를 신고하지 않아 집값 담합에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고내용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신고내용을 조사 ▲조사 결과 확인된 부동산·조세 관계법규의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고발·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윤관석 의원은 “투기세력 근절을 위해 발표된 정부의 고강도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기, 서영교, 김병기, 김정우, 정춘순, 주미애, 금대섭, 남임순, 김영호 등 이상 9인이 공동발의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국민 교육비 부담 줄이고 입시중심 교육 탈피할 것”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서 정책 소신 밝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할 경우 국민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입시중심 교육에서 벗어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앞으로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교육은 여전히 입시중심 교육에 머물러 있고, (학생들은) 과도한 성적 경쟁을 하고 있다”며 “소득과 계층에 따른 교육 기회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으며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가 될 수 있다는 국민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유 후보자는 “국가의 교육비 투자를 확대해 국민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유아부터 초등학교까지 국가책임 교육을 실현하고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해 자녀 양육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더 낮추는 한편, 특수교육 대상자와 다문화 학생 등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와 함께 미래에 대비한 인재양성 시스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입시·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게 공부할 수 있도록 새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문·예·체 교육을 활성화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고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를 혁신하겠다”고 전했다. 또 “지역 사회 발전의 거점인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고, 학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진로교육과 평생교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명문대 진학을 교육의 목표로 두는 풍토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성·흥미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령기 이후에도 취업·이직·육아 등 생애주기별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꾸려 인재양성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중앙부처 주도의 정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유·초·중등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이밖에 사회부총리로서의 부처 간 협력·조정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의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하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hys@

방역망 뚫고 여왕개미까지... 추석 앞두고 '불개미 비상'

**생태계교란종 '붉은 불개미' 발견
현장 조사·추가 개체 채집 진행
중국산 석재서 대구로 직송된 듯
부산항만 방역·개미베이트 설치
검역대상 예외 석재도 검역 조치**

최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생태계교란종인 '붉은불개미'가 다시 발견돼 정부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붉은불개미는 항만방역망을 뚫었을 뿐만 아니라 번식이 가능한 여왕개미까지 발견돼 확산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지 사흘째인 이날 환경부, 검역본부 등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현장 조사와 추가 개체 채집 활동을 진행했다.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현장 주변에는



대구 북구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19일 오후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붉은 불개미 군체를 발견한 조경용 석재를 천막으로 덮고 가스를 투입해 박멸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환경부 관계자들이 약제 살포와 조경석 석재 밀봉 조치를 하고 있다. 이 작업에는 환경부와 국립생태원, 검역본부 등에 소속된 10명이 투입됐다.

또 1차로 트랩 150개를 설치하는 등 20일까지 반경 5km 이내에 트랩 500개 정도 설치해 개미의 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항구, 보세창고 등 국경지역 외부에서 여왕 개미를 포함한 대

량 군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계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중국산 석재가 하역 후 대구 현장으로 직송된 것으로 보이고, 발견장소로 이동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결혼 비행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붉은불개미가 공사현장 이외의 국내 생태계로 확산됐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강력한 초동 대처를 위해 해당 석재가 수입된 부산 항만에 대해서는 이미 육안관찰 및 개미베이트 추가 설치 작업을 진행했으며 이와 별도로 추가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해당 석재가 실려있던 컨테이너 8개 중 3개는 이미 국외로 반출했으며, 나머지 5개는 수출을 위해 신선대부두에 적치중이다. 적치중인 컨테이너 5개에 대해서는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석재는 그 특성상 검역대상이 아니나, 세척하지 않거나 나무뿌리 등이 붙어 있거나 외래 병해충이 섞여 있을 우려

가 큰 석재에 대해서는 세관검역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26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역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대구 북구 아파트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중국산 석재에서 붉은불개미 7마리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개체 및 석재에 살충처리·1차 소독, 석재 밀봉 등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금일 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18일 오후에 밀봉 보관해 두었던 석재에서 여왕개미 1마리와 공주개미 2마리 및 붉은불개미 군체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붉은불개미 확산 차단을 위한 범부처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지금까지 발견된 붉은불개미는 여왕개미 1마리, 공주개미 2마리, 수개미 30마리, 번데기 27개, 일개미 770마리 등 약 830마리 정도로 추산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정책브리핑

산업부 韓-英 브렉시트 영향 논의 무역작업반 3차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0일 서울에서 '한-영국 무역작업반(Trade Working Group) 제3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한-영 양국은 지난 2016년 12월 한-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에서 양국에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브렉시트 이후 한-영간 새로운 통상관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7년 2월 및 12월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의 혜택을 향유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영간 무역 및 투자 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고용노동부 본선 41팀에 총 2억 '소셜벤처 경연 대회'

고용노동부 19일 '2018 소셜벤처 경연 대회'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한 경연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적 기업 창업아이디어 대회로 그동안 여반비즈 서울, 모여댄, 심시일밤 등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배출됐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 접수를 진행해 전국에서 922팀이 신청했다. 이후 7월에는 5개 권역별 예선심사를 거쳐 246팀을, 8월에는 권역대회 대면심사를 거쳐 본선진출 73팀을 선정했고, 이날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41팀이 수상팀으로 선정됐다.

본선대회 41팀의 수상자에게는 총 2억여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일반창업분야 대상에는 국무총리상을, 청소년 분야 대상을 비롯해 11팀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쌀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품종검정제 도입

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매입 추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 제외

정부가 2018년산 쌀 35만톤의 매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을 농가로부터 이달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비축미 중 포대 단위로는 25만톤을, 산물 형태로는 지난해 보다 1만톤이 늘어난 10만톤을 매입해 농가 편익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비축과 별도로 '아세안+3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2018년산 쌀 1만톤을 매입한다.

동아시아원조용(아세안+3) 쌀 매입은 공공비축매입과 함께 시행되며, 미국 선적항구가 있는 전남, 전북 지역의 공공비축용으로 매입된 미국 중 1만톤을 별도 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12월중 확정되



/뉴시스

며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고, 중간정산금(3만원/포대)은 농가가 수매한 달의 말일에 우선 지급해 농가에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2016년 우선지급금 환급액 미납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미납자 중 공공비축미 출하를 원하는 경우 2018년 매입대금에서 상계처리 하는 것에 동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친환경 비 5000톤을 일반비 특등가격

기준으로 시범사업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친환경 비 여부 확인을 위해 매입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표본검사)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잔류농약 검출 농가는 친환경 인증 취소 등 행정조치 및 5년간 공공비축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친환경 비 공공비축미 매입과 품종검정제를 통해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산업부 FTA 이행 상황 공유 유관기관 협의회 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수) 서울 인터콘 파르나스에서 유명한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관세청, 업종별 협·단체, 자유무역협정(FTA)지원기관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2018년 상반기 중 업계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과정에서 제기한 애로와 그간 자유 무역협정 이행위를 통해 해결 또는 협의 중인 상황을 공유했다.

또 무역·자유무역협정 관련 지원기관들은 수출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유 무역협정 활용 지원 사업 및 무역보험 지원, 무료 원산지 관리시스템개선과 보급 추진현황, 인증관련 주요 애로사례와 지원사업 등을 안내했다.

우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수출 다변화 대상 국가에서의 자유 무역협정 수혜품목 수출 확대를 위한 'FTA활용홍보관 운영계획' 및 주요추진사업 등에 대해 안내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도 우리기업의 자유 무역협정 체결국 진출 시 수출보험 한도 확대와 보험료 할인 등 무역보험 지원을 우대하고 있음을 전달했다.

한국무역정보통신은 기업의 원산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영세·소기업용 '간편형' 시스템 및 중견기업용 '수출공급망형' 시스템 개발현황을 발표했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인증 및 기술규제에 관한 주요국 애로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참석한 업종별 협·단체와 주요 통상관련기관들은 당면한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현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 실장은 "수출지원기관과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기관이 함께 한번에(ONE STOP)기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내륙 강·호수서 요트 탄다... '마리나' 후보지 12곳 선정

해수부 춘천 의암호 등

이제 내륙지역에서도 수상레저를 자유롭게 즐기게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9일 국내에 내수면 마리아를 도입하기 위한 입지조건 검토를 마치고, 춘천 의암호 등 12개 지역을 내수면 마리나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마리나'란 스포츠 또는 레크리에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로 항로와 정박시설뿐만 아니라 주차장·호텔·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항만을 말한다.

내수면 마리아는 해수면에 비해 수면이 잔잔해 수상레저 초보자도 안전하게 즐기면서 교육 받을 수 있다.



도심 레저형 마리나 조감도. /해양수산부

또한, 건설비용이 많이 드는 외곽 방파제를 갖출 필요가 없고, 공사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경제적인 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이 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이번 후보지 선정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았다.

해수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일본·유럽 등 해외사례와 국내 내수면(하천, 호수, 방조제 등)에 대한 환경·입지 등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내수면 마리나 개발유형으로 도심 레저형, 전원 휴양형 2가지 유형을 도출했다.

아울러,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64개소를 대상으로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학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12개소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최종 후보지 12개소는 현재 마련 중인 '제2차(2020~2029) 마리나항만 기본계획'에 반영해 내수면 마리나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稅 혜택 축소 전에... 강남, 임대사업 등록 3배 늘어

서초·송파구 각각 777건 등록
노원 108→183→557건 증가

정부의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축소 발표와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9월 들어 서울 강남권 등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전월 대비 최대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바지 세제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과 늘어나는 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달 17일 기준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총 1050건으로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11일 만에 1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 한 달 등록 건수인 245건의 4.3배, 8월 345건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는 4월 양도소득세 종과를 앞두고 지난 3월에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3월 못지않게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역시 강남권인 서초구와 송파구는 17일 기준 나란히 777건이 등록됐다. 지난 8월 서초구의 등록 건수가 238건, 송파구는 303건이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비강남권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양천구는 17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총 931건으로 7월 457건, 8월 548건보다 크게 늘었다. 양천구도 이달 말까지 임대등록자 수가 강남구에 이어 1천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소형 아파트 단지가 많은 노원구의 경

우 지난 7월과 8월 각각 108건, 183건에 그쳤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이달 18일 현재 557건으로 증가했다.

평소 임대등록이 많지 않았던 영등포구도 지난 8월 169건에서 9월에는 181건 현재 367건으로 증가했고, 용산구는 8월 82건에서 이달에는 181건 현재 2.8배 수준인 230건으로 늘었다.

마포구는 이달 18일까지 111건이 등록돼 다른 구에 비해 급증한 것은 아니지만 역시 8월 한 달(152건) 신청 건수는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것은 지난 2일 "신규 임대사업등록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바로 다음 날부터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구청의 임대사업등록 접수창구는

밀려 들어오는 신청자로 복새통을 이뤘고 담당자들은 지금까지도 관련 업무 처리로 자리를 비우기가 어려울 정도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장관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인다고 하니 혜택이 없어지기 전에 등록하겠다고 한꺼번에 민원인들이 몰려들었다"며 "그간 임대등록을 망설이던 사람들이 등록 쪽으로 의사결정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9·13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임대등록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14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종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없지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한 까닭이다.

특히 청약조정지역에서 3주택자는 물론 2주택자에 대해서도 종부세를 종과하

고, 서울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종부세 부담을 피할 목적의 임대사업 등록도 줄을 잇고 있다.

관할 구청과 세무서에는 증여 신청도 늘고 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거나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이다. 부부 간 증여 시 10년간 6억원까지는 비과세되는 만큼 절세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한은행 도곡PMW 이남수 PB팀장은 "9·13 대책 이후 절세가 자산가들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앞으로 임대등록이나 증여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이라며 "다만 다주택자 증여 시 똑같이 양도세가 종과되는 등 매도에 비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득실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추석연휴 지하철·버스 새벽 2시까지 연장

서울시, 24~25일 특별교통대책
올빼미버스·심야택시 정상운영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귀성·귀경객 모두 안전하게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

시는 19일 귀경객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인 24일과 25일에 지하철(1~9호선, 우이신설선)과 버스 막차시간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운행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시내버스도 새벽 2시까지 운행 시간을 연장한다.

기차역 5곳(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청량리역·수서역) 및 버스터미널 4곳(서울고속·동서울·남부·상봉터미널)을 경유하는 129개 노선이 그 대상이다.

올빼미버스 9개 노선과 심야 전용 택시 2800여대도 연휴기간 내내 정상운행해 밤늦게 서울에 도착해도 시내 이동에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성묘객을 위해서도 같은 날 용미리(774번)·망우리(201, 262, 270번) 시립묘지를 경유하는 4개 시내버스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린다.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부근 고속도로 상하행선이 벌초 및 나들이객의 차량이 몰려 극심한 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뉴스1

시내 5개 터미널을 경유하는 서울 출발 고속·시외버스도 22일~26일 운행횟수를 하루 평균 840회씩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자동차로 이동하는 시민들을 위해 빅데이터로 분석한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운전자들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픽스 누리집이나 서울교통포털 앱에서 일자별·시간대별 서울시내도로의 정체구간과 통과 소요시간 예측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정보는 서

울교통정보센터 토픽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 '서울교통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문의는 120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고흥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성묘를 나서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빈틈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중교통과 도로소통 예보를 이용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구직자 51% "구직 중단 경험·포기 상태"

사람인, 상반기 456명 대상 조사
원인 35% '어차피 안될 것' 불안감

구직을 중단했거나 아예 포기한 구직자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사이트 사람이인 지난 상반기 구직자 4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직을 중단한 경험이 있거나, 지금 아예 포기 상태'라고 답한 응답자가 50.7%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이 구직을 포기한 가장 큰 원인은 '취업이 어차피 안될 것이라는 불안감'(35.1%)이었다. 어떤 시도를 해도 소용 없다는 무기력증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직 단념 경험이 많아지고,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청년층의 사회진출도 점점 늦어지고 있다. 사람이인은 지난 5월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를 인용해, 첫 취업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11개월로 '6개월~1년 미만'(49.6%), '1~2년 미만'(12%)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장기간 취업준비를 하는 이들의 비중도 조금씩 늘었는데, '2~3년 미만'은 전년 동월 대비 2%포인트(8.8%→10.8%) 증가했다.

기업들도 신입사원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다. 사람이인 기업 499곳을 조사한 결과, 4년제 대졸 기준 '신입사원 나이가 높아지는 추세'(68.1%)라는 기업이 많았다. 30대 이상 신입사원을 채용한 경험도 69.5%에 이르렀다. 2018년 상반기 30대 이상 신입 지원자의 비율도 지난해 채용 대비 증가했다(48.1%)는 기업이 다수였다. /이범중 기자 joker@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 부부

19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60+ 시니어일자리 한마당'에서 부부로 보이는 시니어 구직자가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부산시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니어에게 취업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 행사에는 115개사 20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해 장·노년 구직자 1238명을 채용한다. /연합뉴스

"깜깜이 해외연수 꼼짝마!"

부당집행 910만원 '주민감사청구'로 환수

#. 2016년 대만, 2017년 두바이로 공무원 해외여행을 한 서울시 A구의회는 심사결과 여행 부적격 직원이 발생했지만 이를 반영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여행경비는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여행사에 직접 지급했다. 항공권 구입 시 정부항공운송료의(GTR)와의 비교 견적 없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고, 공무원 여행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 2016년 일본으로 공무원 해외여행을 한 B구의회는 현지에서 차량을 빌려 여행하면서 교통비를 과다 계상하고 정산하지 않았다. 또 결과보고서 작성 시 인용할 수 없고 창작해야 할 의견 서술 부분(느낌, 견학 후기)을 특정 잡지에서 일부

무단 사용한 점이 지적되었다.

이들 사례는 모두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된 것이다. '눈먼 돈'으로 '깜깜이' 해외연수를 일삼는 지방의회의 '외유'를 주민들이 잡아냈다.

서울시 시민감사유무조사위원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자치구의회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5건의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완료해 관계기관에 시정요구, 부당집행 예산(총 910만5638원) 환수 등의 조치를 했고, 1건은 감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광실 일정, 부적절한 여비집행, 공무원 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등이 주로 문

제가 됐다.

A구의회에 대해서는 과다산정 여비 739만9천780원 환수가 이뤄졌고, 여비 업무 처리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직원 교육을 하라는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B구의회에 대해서는 과다산정 여비 145만3천900원을 환수하고, 국외 항공운임 지출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라는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시민감사유무조사위원회는 자치구의회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가 지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감사결과 및 지적 사례를 25개 전 자치구에 전파하고 해외연수 관련 업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광주시의회,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요구

“진정한 자치분권 위해 개헌부터”

인사권 독립·전문인력 확충 법제화 의정활동 지방의회 자율 추진 요구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가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동찬 의장 등 광주시의회 의원 20명은 19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기능 중심의 포괄적 이양을 추진할 것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사, 기타 행정 운영상 필요한 권한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의 본질인 재원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또,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전략 33개 과제 가운데 지방의회 관련사항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정보공개’라는 하위과제에서 다루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 등은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형식적으로 다루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회는 자치입법권과 관련해 개헌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실상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만큼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김동찬)는 9월19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광주시의회 입장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하고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계획 마련, 그리고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과 관련해 조례로 법제화할 것, 의정활동 공개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의회는 이와 함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을 내용으로 발의돼 있는 12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의회 관련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줄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밖에 광주시의회는 행안부가 내년 1월 입법을 통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김 의장은 “행안부가 마련한 광역의원 보좌관제는 의원 3명당 1명의 정책보

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의 광주시의회에 적용하면 모두 7명의 보좌관을 둘 수 있다”며 “적어도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보좌관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행안부가 정책보좌관제를 법제화하면서 현재 광주시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간제 공무원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광주시의회에서 시간제 공무원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15명의 보좌관 가운데 절반 정도가 보좌관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이다.

김 의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전국 광역의회 시도의회협의회를 통해 당장 의원 1인당 1보좌관 도입이 힘들더라도 의원 2명당 1명 보좌관제 도입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평택산단서 환경오염물 배출 19곳 적발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경기도가 대기오염시설이 있는데도 운영을 하지 않거나, 훼손된 채로 공장을 운영한 양심불량 업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포승산단지역과 세교공업지역, 대단위 고덕 택지개발 지구 등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처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 결과 부적정하게 오염물질을 처리한 19개 사업장을 적발,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시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31개 시·군 중 가장 높아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평택시의 지난 8월까지 미세먼지 평균농도는 54.4µg/m³으로 환경기준인 30µg/m³을 훌쩍 넘었다.

이번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지 7건 ▲기타 4건 등 총 19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 알루미나농생산업체는 분쇄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조업정지 10일과 고발조치 처분했다.

B스테인리스강관인쇄업체는 저장시



경기도가 평택시의 모 기업에서 대기방지시설 덕트가 훼손된 채로 방치된 모습. /경기도

설의 오염물질을 한 데 모아서 방지시설로 이동시키는 덕트가 훼손돼 경고 및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C택지개발 사업장은 이동식 살수기를 가동하지 않고 포클레인 등 중장기를 사용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사항을 공개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방지시설 미운영 및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한 3개 사업장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경기지역화폐’市·郡 목소리 모아 성공 꿈꾼다

경기도,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활성화 방안·추진상황 등 공유

경기도가 ‘경기지역화폐’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시·군 의견 수렴에 나선다.

경기도는 19~20일 양일간 양평 블루비스타에서 도 및 시·군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역화폐 도입·확대를 위한 제2차 시·군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지역화폐’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군의 의견을 수렴, 제도를 보완·발전시키는 목적이다.

도는 지난달 27일 시·군 업무 담당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1차 워크숍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현재 지역화폐 추진상황을 설명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고 지역화폐 표준조례안과 매뉴얼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갖는다.

경제실장 주제 도-시·군 과장급 간담회,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분임별 토의를 통해 ▲시·군별 지역화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지역화폐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희망 사업자들도 참여, 각 회사별 제안 설명을 청취해보는 자리도 마련된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총 7개 회사가 참여해 10분간 시스템 구축 및 운영방안, 보안성 확보방안, 소요예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 설명회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자들의 플랫폼 운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로,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 사업자선정과는 관련이 없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는 이영주(양평, 경제과학위원회) 경기도의원은 “경기지역화폐의 성공적 정착은 현장 공무원에게 달려있다”며 “가맹점 확대, 사용자 편의 등 지역화폐의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메밀꽃 바라보며 휴식을 19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당남리섬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메밀꽃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인사·조직·문화 시정혁신 팔견어

광주광역시 혁신·소통·청렴의민선 7기 시정가치를 반영한 조직·인사·문화 등 시 내부행정 4개 분야 20개 혁신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7월 2일 전 직원 대상 첫 정례회에서 “공직자들이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을 가야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우뚝 설 수 있다”면서 인사혁신, 조직혁신, 문화혁신 등 광주시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시정혁신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시 혁신안은 시민편의 증진과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에 대응해 행정변화의 능동적 주체로서 정책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조직, 인사, 문화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해 현안조정회의, 혁신아이디어발굴 TF,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했다.

사 분야에서는 부서장의 추천, 개인의 희망(사유), 경력(근무부서, 근무성적, 상훈, 평가결과, 교육 등)을 고려하는 일 중심의 희망인사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

/광주=봉태영 기자

광주 남구 “내일, 전통시장에 장 보러 갑니다”

“추석 성수품, 전통시장에서 장바구니에 가득 담아 오겠습니다.”

광주 남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오는 21일 관내 전통시장에서 ‘2018년 추석맞이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추진한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1일 오후 3시부터 무등시장과 봉선시장, 백운시장에서 구청 공무원들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장보기에는 구청 모든 실·과·소 직원 및 관내 16개동 주민센터에서 근무

하는 직원들이 참여하며, 이들은 추석 제수용품 및 생활 필수품을 구입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청 공무원 200여명은 명절을 앞두고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자체적으로 구입하기 위해 십시일반으로 5만원씩 모아 총 1,000만원 가량의 상품권을 구입하기도 했다.

남구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까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도 지갑을 쉽게 열지 않아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주



광주 남구 봉선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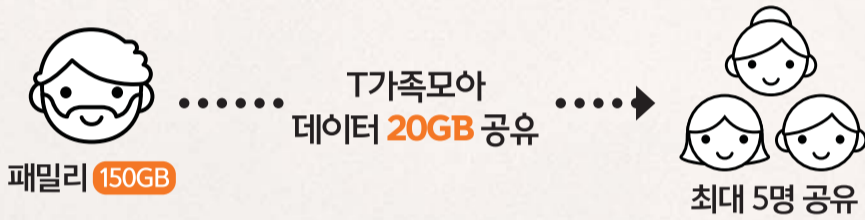
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 활력의 바람을 불어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봉태영 기자



하나부터 열까지
새로고침

우리가족 데이터 걱정 끝! T플랜 패밀리



나는 물론, 가족의 데이터까지 넉넉하게!
기본 150GB, 가족공유 20GB 제공

기본 제공량 중 테더링 및 공유는 월 20GB까지 가능,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5Mbps 속도로 계속 이용 가능.

매번 선물하지 않아도 알아서 넉넉하게!
데이터 자동 공유 서비스

T가족모아 서비스를 신청한 가족이 이용할 수 있으며,
1명 이상은 T플랜 패밀리 요금제 가입 필수.
최대 5인까지 공유 가능하며 가입 가능한 요금제는 7종
(T플랜 스톤/미디어/라지/패밀리/Data인피니티, 주말엔딩, 쿠키스마트)

가족을 위한 혜택도 넉넉하게!
**온가족 뮤직메이트 음악듣기 월 300회,
멤버십 VIP, 클라우드베리 36GB 제공**



‘더 CJ컵’, 두번째 티샷으로 CJ의 글로벌 입지 굳힌다

‘더 CJ컵’ 10월 18일~21일 개최

비비고, 2년 연속 메인스폰서로 전세계에 브랜드 노출효과 톡톡

총상금 106억... 선수 78명 참가 ‘스포츠·문화 플랫폼’으로 우뚝

“올해 2회를 맞은 ‘더CJ컵’을 통해 국가브랜드 제고, 국내 남자골프 성장, 메인스폰서 비비고를 필두로 한 CJ글로벌 브랜드링이 세 가지 목표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골프대회를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문화플랫폼’으로 키우겠습니다. 더CJ컵을 모멘텀으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CJ그룹의 성장을 지켜봐주시시오.” (CJ주식회사 마케팅실 경욱호 부사장)

CJ그룹은 국내 유일 PGA 투어 정규대회인 ‘더CJ컵(THE CJ CUP@NINE BRIDGES)’을 앞세워 비비고의 글로벌 브랜드화에 속도를 낸다. 특히 비비고는 2020년까지 국내외 2조원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더CJ컵은 총 상금을 950만 달러로 늘렸고 대회기간중 비비고 해외광고, 테이스티 로드 운영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CJ그룹은 지난 18일 서울 동호로 C



경욱호 CJ주식회사 마케팅실 부사장. /CJ그룹

J제일제당센터에서 오는 10월 18~21일 제주 클럽 나인브릿지에서 열리는 더CJ컵 소개행사를 가졌다. 또 지난해 첫 대회를 통한 CJ의 글로벌 브랜드링 성과, 메인스폰서 비비고의 해외 진출 전략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더CJ컵’

CJ주식회사 마케팅실 경욱호 부사장은 “더CJ컵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나가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난해 첫 대회를 열었을 때 나흘간 총 3만5000여 명이 대회장을 찾았다. 또 전세계 227개국 10억 가구에 중계방송돼 1668억원의 미디어 노출효과를 창출해냈다”고 입을 열었다.

올해 더CJ컵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제주 클럽 나인브릿지에서 진행

되며 총 78명의 선수들이 나흘간 킷오프 없이 명승부를 펼칠 전망이다.

총 상금 규모는 지난해 대회보다 25만 달러 증액된 미화 950만 달러(한화 약 106억원)로 메이저대회와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WGC 대회를 제외하고는 PGA TOUR 정규대회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PGA 투어 역사상 가장 많은 17명의 한국 선수들이 출전했으며 CJ는 침체된 국내 남자 골프 중흥을 위해 올해도 유망한 선수들이 해외 무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경 부사장은 “이번 대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펜딩챔피언’ 저스틴 토마스가 참석을 확정했다. 주요 선수들이 일정 조정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컨firm을 하지 않았다”며 “타이거 우즈는 이번 년도에는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이번 대회를 앞두고 특별히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회장님께서 지난해 첫 대회였음에도 좋은 선수들이 왔고, 대회 운영 코스 세팅이 훌륭했다고 하셨다. 다만 우리가 골프를 하는 이유가 글로벌 시장에 다가가기 위한 때문이었는데 글로벌 소비자들이 생각만큼 많이 오지는 않아 걱정이 아쉽다더라”라며 “이번 대회에 바라는 건 ‘기본에 충실한 골프 대회를 운영하는 것’이

다. 좋은 선수들이 충분한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게 경기장 세팅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셨다. 소비자들에게는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메인 스폰서 ‘비비고’의 전략

지난 대회에서 메인 스폰서인 ‘비비고’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에 브랜드 노출 효과를 톡톡히 봤다.

CJ는 더CJ컵 개최와 맞물려 미국시장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비비고를 대표 한식 브랜드로 알리는 것에 주목한다.

비비고는 한국의 식문화를 해외 시장에 전파시키기 위해 탄생한 CJ그룹의 전략 브랜드로 현재 만두, 김치 등 6개 카테고리 100여개 비비고 제품이 글로벌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다.

비비고 만두는 지난해 미국에서만 175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미국 만두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축적해온 글로벌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미국에서만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손은경 CJ제일제당 식품마케팅 본부장(상무)은 “비비고가 더CJ컵 개최에 참여하면서 전세계적으로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었다”며 “이미 미국 코스트코에서는 비비고 만두가 대표 만두로 자리잡았으며, 올해는 이러한

기세를 이어 스토리텔링을 통해 한식을 좀 더 널리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프대회에서 미식을 즐기는 건 더 CJ컵이 유일하다. 지난해 유례없던 한식 테이스티로드를 만들어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올해는 ‘비비볼’라는 골프공 모양의 한식 만두와 ‘비비콘(콘 형식의 비빔밥)’ 등 새로운 메뉴들을 준비했다. 또 AR(증강현실) 기반의 스마트 테이스티로드를 개발해 선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비고는 만두와 가정간편식을 앞세워 2020년까지 비비고 브랜드만으로 국내외 1.9조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이중 53%인 1조원 가량을 해외 매출로 채워 명실상부한 글로벌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CJ는 미국 내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더CJ컵 개막 시점에 맞춰 한국계 미국인 할리우드 배우 이기홍을 모델로 앞세워 비비고 광고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손 상무는 “미국 시장에서 얻은 경험과 노하우가 CJ제일제당 해외진출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인 스포츠대회 개최를 계기로 비비고가 진정한 글로벌 한식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직장인·구직자 절반 “추석에 고향 안가”

인크루트 1106명 대상 설문

1위 “친지 없어”·2위 “잔소리 싫어”

직장인과 구직자의 절반 이상은 올해 추석 연휴에 고향에 갈 계획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9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아르바이트 O2O 플랫폼 ‘알바콜’에 따르면 직장인과 구직자 1106명을 대상으로 추석 계획에 대해 공동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3.0%는 귀향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귀향하지 않는다고 밝힌 응답 비율은 구직자(55.2%)가 직장인(50.4%)보다, 미혼자(57.1%)가 기혼자(48.7%)보다 각각 높았다. 1인 가구의 경우 귀향 계획이 61.1%로, 2인 이상 가구(43.0%)를 훨씬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경우 75.0%가 고향에 가지 않는다고 답해 미귀향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가 57.7%로 뒤를 이었다. 20대(52.8%)와 30대(56.9%), 40대(50.0%)는 엇비슷했다.

추석에 귀향하지 않는 이유로는 ‘고향에 친지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23%로 가장 많았다. 특히 40대의 30.3%, 60대 이상의 46.2%가 각각 이를 이유로 들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냈다.

이어 ‘잔소리, 스트레스가 예상돼서’라는 응답(20.0%)이 뒤를 이었고, ▲차량 정체에 대비해 미리 다녀옴(15.0%) ▲여행 등 다른 계획(13.0%) ▲지출 부담(11.0%) 등의 순이었다. /한용수 기자 hys@

호텔업계, 추석 호캉스족에 ‘싱글병글’

조선호텔 예약률 작년비 30% 올라 힐링 등 실속있는 패키지 인기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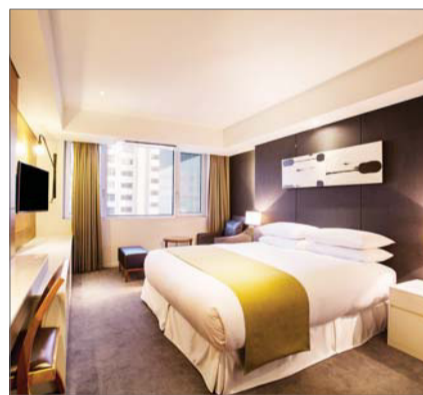
명절 연휴 때 역귀성 하는 트렌드에 더해 ‘호캉스’를 즐기려는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호텔업계가 즐거운 마음으로 추석을 기다리고 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명절은 호텔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였으나, 작년 사상 최대로 긴 명절에 호황을 누렸던 호텔들은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더 좋은 실적을 낼 전망이다.

서울웨스틴조선호텔은 18일 기준 올해 추석 패키지 예약률이 작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일 예약이 많은 기간이라 예약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조선호텔은 전망했다.

조선호텔은 레트로에 복고 아날로그 감성, 현대적인 시각, 색감의 재미를 더한 ‘추석화동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다.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은 추석 패키지를 포함 추석 기간 객실 예약률이 지난해 대비 약 30% 증가했다.

추석 패키지만 놓고 보면 작년보다 예약률이 현재까지 약 25% 증가했고, 기간이 아직 남아 추가 예약도 기대하고 있다.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은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실속 있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다익선’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호텔의 경우도 시그니엘서울은 작년 대비 소폭 상승했고, 평균보다 2배 가량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다.

롯데호텔월드도 현재 이미 거의 만실이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운영하는 ‘더플라자’의 추석 패키지 예약률도 작년 대비 5% 정도 상승했다.

더플라자는 최근 소비 트렌드인 가성비(가격대비 높은 만족도)를 추구하는 고객을 위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인테리어를 한 객실에서의 휴식과 특별한 기프트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추석 패키지를 마련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관계자는 “서울 특급호텔의 내국인과 외국인 투숙 비율이 유일하게 뒤집히는 기간이 명절”이라며 “이번에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역귀성 고객은 물론 많은 분이 호텔에서 휴식을 즐기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해외 장학생 52명에 졸업까지 등록금 지원

종근당고촌재단 해외장학사업

종근당고촌재단은 올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르완다 3개국에서 현지 장학생 52명을 선발하고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종근당고촌재단은 인도네시아 저소득 가정 대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20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해 17일과 18일 인도네시아 반둥공과대학교와 국립대학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재단은 이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매년 졸업하는 장학생 수만큼 추가로 장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앞서 13일과 14일에는 베트남 하노이

약학대학교와 호치민 의학대학교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갖고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또 베트남 현지 대학을 졸업하고 성균관대, 가천대, 영남대학교에 입학한 글로벌 리더 장학생 4명을 추가로 선발해 등록금과 체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10월에는 르완다 국립대학생 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종근당고촌재단 김두현 이사장은 “종근당고촌재단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 향후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지원학교와 학생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금강제화 NCSI 남성정장구두 15년 연속 1위

고객충성도·품질 등서 우수성 인정

금강제화는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8 NCSI(국가고객만족도)’에서 15년 연속 남성정장구두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19일 밝혔다.

NCSI인 국가고객만족도지수는 한국생산성본부와 미국 미시간대학이 공동 개발한 고객만족 측정모델로, 국내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 76개 업종, 3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를 직접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 평가한 만족지수다.

이번 조사에서 금강제화는 세부 항목인 고객의 기대수준, 인지품질, 인지가치, 고객충성도 등에서 높은 평가와 함께 우수성을 인정 받아 15년 연속으로 남성정장구두부문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신원선 기자



백화점상품권, 포인트로 바꿔쓰면 재미 ‘쑥쑥’ 용도 ‘다양’

온라인·간편결제 발달로 사용 어려워
여러 절차 없이 바로 포인트 전환 가능

평소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임지선(28) 씨는 지난 해 명절에 선물 받은 백화점 상품권을 올해까지 사용하지 못했다. 상품권의 금액을 온라인 포인트로 전환해 바로 사용하고 싶었지만,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상품권을 보내거나 직접 고객 센터에 방문해 포인트로 전환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 때문에 상품권 사용을 포기했다. 종이 상품권은 구매 금액도 얼마 이상 초과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되어 있어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온라인쇼핑 시장의 성장과 간편결제의 발달이 상품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족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추석 선물로 상품권을 준비하는 이들이 많다. 백화점 상품권은 선물받은 사람이 직접 다양한 제휴처에서 원하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명절이나 기념일 선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5일 오전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추석 명절 맞이 상품권 패키지 판매를 시작하는 사진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패키지는 500/1,000/3,000/5,000만 원 패키지로 구성되어 0.5~3%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추가 증정한다. /연합뉴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쇼핑이 중심이 되고, 카드나 간편결제 시스템이 발달해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현금과 지갑을 소지하는 사람이 드물어 선물 받은 백화점 종이상품권을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종이상품권을 받더라도 온라인 포인트로 바꿔쓰는 추세다.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해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종이상품권과 달리 온라인에서는 원하는 금액대의 상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소비자에게 매력으로 다가온다.

국내 백화점 상품권 발행 규모는 연간 5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 2

월 상품권법 폐지로 누구나 자유롭게 상품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게 되면서 정확한 국내 상품권 유통시장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지류 상품권 규모는 연간 10조원대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백화점 상품권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 백화점 상품권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상품권이다.

특히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스크레치형)은 신세계 간편결제 서비스 SSG페이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SSG머니로 전환해 바로 사용 가능하다.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우체국 방문 없이 SSG페이 앱만 있으면 SSG머니로 전환할 수 있다.

SSG머니는 SSG닷컴을 비롯한 SSG 페이의 온·오프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종이 신세계상품권을 SSG머니로 전환하면 상품권 분실과 훼손 걱정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소지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SSG페이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으로 신세계상품권(스크레치형)을 SSG머니로 전환한 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79% 증가했다.

롯데의 모바일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롯데멤버스도 롯데상품권의 엘포인트(L.point) 전환이 늘었다고 전했다.

롯데멤버스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엘포인트 전환액은 약 550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한 금액으로, 특히 8월은 전환 서비스 오픈 후 월 전환액이 처음으로 100억을 돌파했다. (전년대비 501% 증가) 지난해 총 포인트 전환 규모는 34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엘포인트는 외부 제휴사 상품권도 엘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하다. 롯데그룹의 다양한 계열사 서비스는 물론 30만여개 제휴 가맹점에서도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것. 외부 제휴사로는 북앤라이프, 해피머니, 와이비엠상품권, 하나멤버스, 위비멤버스 등이 있다. 특히 북앤라이프의 경우 엘포인트 전환 사용이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다.

엘포인트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엘포인트로 전환 가능하다. 로그인 후 상품권 권종 및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오감만족 맥주 축제 ‘옥토버베스트’로 놀러오세요~” 19일 서울 강남구 ‘구스아일랜드 브루하우스’에서 미국 1세대 크래프트 맥주 ‘구스아일랜드’가 오감 만족 맥주 축제 ‘옥토버베스트’를 소개하고 있다. 구스아일랜드는 이번 축제 기간을 맞아 ‘옥토버베스트’ 스페셜 메뉴와 하우스맥주를 다음 달 말까지 한정판으로 선보인다. /구스아일랜드

최대 50% 할인... 홈플러스 ‘추석맞이 완구대전’

헬로카봇·공룡메카드 등 할인판매

홈플러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점포에서 ‘추석맞이 완구대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사기간 동안 ▲‘헬로카봇’ 18종은 30~50% ▲손오공 ‘공룡메카드 메가 시리즈’, ‘캡처카 시리즈’는 전 품목 50% ▲‘타이니소어’ 전 품목(100여종) 4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홈플러스가 단독 직수입한 ‘플레이고 요리사 주방놀이 4종 세트’를 비롯한 직수입 역할놀이세트 10여종은 행사카드(신한·삼성·KB국민카드) 결제시 1만원 추가 할인된다.

아울러 행사 기간 동안에는 각종 사은품 증정 행사도 진행된다. 우선 베이블레이드 6만원이상 구매시 한정판 ‘골드위닝 발키리’를 증정하고, 반다이 갤럭시포스, 갤럭시싱 등 메인 3종 구매 고객에게는 한정판 ‘스타볼’을 증정한다.



레고 7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레고 플레이 매트’를, 10만원 이상 구매시 ‘레고 학용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또 다음달 3일까지 행사카드로 완구상품을 10만원 이상 구매시 홈플러스 상품권 1만5000원권을 증정한다.

김진희 홈플러스 문화상품팀 바이어는 “완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명절 시즌을 맞아 아동들에게 인기가 높은 완구들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고, 구매 금액 대비 사은품도 마련한 만큼, 고객들의 많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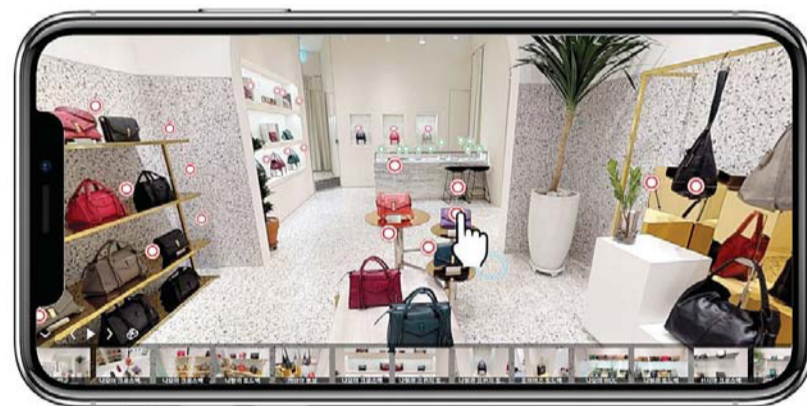
롯데홈쇼핑 ‘VR 스트리트’ 업계 첫 도입

플래그십 매장 6곳 VR기술 적용
내년 상반기 100여개 브랜드 확대

롯데홈쇼핑은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해 실제 매장에 있는 것처럼 쇼핑이 가능한 ‘VR 스트리트’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고 19일 밝혔다.

VR 스트리트는 입체(3D) 화면을 통해 매장 곳곳을 살펴보고 원하는 상품을 선택해 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까지 가능한 체험형 서비스다. 덴마크 디자인 스토어 ‘플라잉타이거 코펜하겐’, 뉴욕 디자이너 핸드백 브랜드 ‘조이그라이스’, 국내 주얼리 브랜드 ‘골드듀’ 등 국내외 유명 플래그십 매장 6곳을 VR 기술을 활용해 그대로 재현했다.

계절이나 이슈에 따라 변경되는 매장의 모습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해 단순 온라인 전시장이 아닌 구매까지 연계된 가상 쇼핑 공간으로 정착시킬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100여 개 브랜드



의매장을 구현하고, 롯데홈쇼핑 단독 브랜드로 구성된 오프라인 매장 ‘스튜디오샵’도 서비스할 계획이다.

VR 스트리트는 롯데홈쇼핑 모바일 앱, 인터넷 쇼핑몰 ‘롯데아이몰’에서 ‘테마샵’을 선택한 후 VR 스트리트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원하는 매장을 선택해 바닥을 터치하며 실제 걸어 다니듯이 매장을 둘러볼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상품을 선택해 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까지 가능하다.

롯데홈쇼핑 이완신 대표이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상품 추천 서비스부터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쇼핑 서비스까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객 편의 중심의 서비스 선도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 고객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쇼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진화된 쇼핑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한섬 ‘타임옴므’·‘시스템옴므’ 라인업 확대 가속화

여성복 넘어 남성복 라인업 강화

한섬이 남성복 브랜드인 ‘타임옴므’와 ‘시스템옴므’ 상품 라인 확대에 속도를 낸다. 이미 여성복 시장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은 타임·시스템과 함께 국내를 대표하는 남녀 토털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한섬은 이번 가을·겨울(F/W) 시즌을 맞아 타임옴므와 시스템옴므에서 ‘더 젠틀’과 ‘SSC’ 라인을 각각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타임옴므는 세련되고 품격있는 ‘비즈니스 캐주얼’을, 시스템옴므는 국내 유명 아티스트와 협업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타임옴므의 더 젠틀 라인은 클래식과 캐주얼 스타일을 동시에 연출할 수 있어



한섬 시스템옴므 SSC라인. /현대백화점

최근 복종에 상관없이 인기를 끌고 있는 ‘셋업 슈트’를 비롯해, 기존 캐주얼 아이

템과 믹스매치해 짧게 스타일링하는 ‘트렌디룩’, 재킷에 셔츠와 니트를 함께 코디해 감각적인 컬러감을 강조하는 ‘레이어드룩’으로 콘셉트를 정했다.

가을 시즌에는 재킷(6개 모델)·코트(1개 모델)·셔츠(3개 모델)·니트(3개 모델)·팬츠(5개 모델) 등 총 18개 모델을 선보인 뒤, 겨울 시즌까지 순차적으로 다운 등 아우터류를 더해 총 32개 모델을 추가로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시스템옴므는 론칭 10주년을 맞아 국내 유명 그래픽 아티스트인 ‘비너스맨션’과 협업해 ‘SSC’ 라인을 선보인다. ‘비너스맨션’은 개성있는 그래픽과 색감 등 작가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으로 국내외 패션·출판·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신원선 기자

현대車, 어린이 안전 위해 '통학차량' 기증

안전기술 적용된 스타렉스 14대 기증

현대자동차가 어린이 통학길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현대차는 18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안전기술이 적용된 스타렉스 통학차량 14대를 '어린이 통학사고 제로 캠페인'에 선정된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사고 제로 캠페인은 현대차의 CSV 5대 분야인 친환경, 이동혁신, 교통안전, 미래세대성장, 지역사회상생 중 교통안전과 미래세대 성장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다.

현대차는 자동차 제조회사로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안전, 기술협력 파트너사와 함께 안전기능이 장착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제공하고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지난 2년 동안 37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4200km의 안전한 통학길을 지



지난 18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어린이 통학사고 제로 캠페인' 행사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원했다.

현대차는 이번에 기증하는 차량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 차량 방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슬리핑차일드체크' 기능을 탑재했다. 이 기능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통학차량

의 도착시간과 승차차 여부를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어린이 하차 후 운전자가 NFC 태그를 통해 차량 내외부를 확인하도록 유도해 어린이가 차량에 방치되는 것을 예방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신한금융 신한DS 베트남 현지법인 설립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베트남 호치민에 위치한 신한베트남은행 본점에서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인 신한DS의 베트남 현지법인인 '신한DS VIETNAM AM(이하 신한DS VN)'을 설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DS 유동욱 사장(오른쪽 첫번째), 신한DS 베트남 이광식 법인장(오른쪽 다섯번째) 및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DS VN은 신한DS가 100% 출자한 현지법인으로 ▲신한금융그룹 현지 그룹사 대상 글로벌 ICT 서비스 제공 ▲베트남 금융 ICT 시장 진출 ▲신(新) 디지털 금융 사업모델 발굴 및 추진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현지법인 설립은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이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0 스마트(SMAR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글로벌 '디지털 원신한(One Shinhan)'의 3박자가 결합된 작품이다. /유재희 기자 ryusoul@

포스코

청년 위한 '쉐어하우스' 건립 지원

'포스코1%나눔재단'이 청년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청년쉐어하우스'의 건립을 지원했다.

19일 포스코에 따르면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입주식을 가진 청년쉐어하우스는 지상 5층 연면적 110평 규모의 다세대 주택으로 서울시에 거주중인 만19~35세의 무주택 1인 미혼가구 청년 18명이 입주한다. 입주 청년들은 주변시세의 절반 수준인 보증금 450만원에서 1060만원, 월 임대료 7만8000원에서 18만6000원을 내고 거주하게 되며 방은 개인별로 사용하고 거실·부엌·화장실 등은 공유한다.

이번 청년쉐어하우스는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건축비를 출연하고 서대문구가 부지를 제공했으며 청년들이 스스로 주거이슈를 해결하고자 설립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주택 운영을 담당함으로써 민간·공공·시민사회 상생 협력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양성운 기자

LG유플러스 드론으로 농작물 야간 방제 '성공'

LG유플러스는 팜한농과 U+드론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야간에도 정밀하게 작물보호제를 살포하는 '드론 야간 방제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8일 저녁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팜한농 작물보호연구센터 연구농장에서 U+드론 관제시스템을 활용하고 고도 3m에서, 3m/s의 이동속도로 1시간 동안 '드론 정밀방제 시연'을 위한 야간비행을 실시했

다. 이를 위해 LG유플러스는 항공안전법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에 따라 비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야간 특별비행을 허가 받았다.

이날 LG유플러스는 U+ 드론 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야간, 정밀 자동 방제 ▲기체 2대를 이용해 작업지역을 자동으로 방제하는 패턴 방제 ▲나선 비행으로 배나무에 작물보호제를 살



LG유플러스 직원이 야간 드론 정밀방제를 위한 U+드론 관제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LG유플러스

포하는 핀포인트 방제 등 드론 정밀방제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나인 기자 silk@

오늘의 운세 9월 20일 (음 8월 11일) <http://www.saju4000.com>

쥐	48년생 오늘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 즐겁게 살아. 60년생 마음이 즐거우니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온다. 72년생 과유불급이라 약간 부족한 것이 이롭다. 84년생 원수를 만나서 다행이었는데 길을 비켜준다.	말	54년생 옛 은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66년생 친구는 내게 보물과 같은 존재이니 잘 챙겨라. 78년생 외로움보다 참기 힘든 것은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 90년생 어려운 일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
소	49년생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61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날이다. 73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상쾌하다. 85년생 작은 먼지가 신경을 거슬리게 되니 마음을 편히 갖자.	호랑이	55년생 쾌청한 날이니 새로운 일에 도전. 67년생 순환기계의 질환이 걱정되니 의심되면 병원으로. 79년생 흰색이 행운을 주니 작은 것이라도 몸에 지니라. 91년생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오늘의 승패를 좌우.
호랑이	50년생 밤을 이겨내면 찬란한 새벽을 볼 수 있다. 62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이 오니 우산과 비옷이 필수. 74년생 하루가 오늘만 같다면 천국이 따로 없겠다. 86년생 거울은 결코 혼자 웃지 않는 법이다.	원숭이	56년생 이랬사람이 길을 터주니 일이 수월하다. 68년생 산들바람이 불어오니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 80년생 자손이 상을 받아 오니 경사가 겁친다. 92년생 마음은 상해도 상사가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구나.
토끼	51년생 머리만 믿지 말고 노력을 해야 한다. 63년생 마음은 청춘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75년생 소문난 잔치에 갔더니 초대된 손님이 아니다. 87년생 행운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항상 준비해라.	닭	57년생 모심으려 할 때는 정화를 신어라. 69년생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래다 보면 길도 보인다. 81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93년생 얼룩진 옷은 바라만 본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호랑이	52년생 길 떠나게 되면 상박약을 챙겨라. 64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76년생 변화의 운이 들어왔으나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88년생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매사에 정성을 다하라.	돼지	58년생 비단옷을 입고 방거리를 걸어봐도 누가 봐 주질 않는다. 70년생 선배와 의견이 맞지 않으니 선택을 분명히 해라. 82년생 무엇을 해도 기본 좋은 날. 94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뱀	53년생 나이 들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풀아라. 65년생 가고자 하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머리로 아프다. 77년생 자식이 맘에 안 들어도 내가 낳은 걸 어찌나. 89년생 유래, 상례, 통쾌한 하루.	돼지	59년생 친구는 자주 봐야 친구다. 71년생 달빛이 밤하늘을 온통 빛나게 하니 좋은 일이 있겠다. 83년생 농친 고기가 커 보이나 내 것이 더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95년생 내일의 성공을 위해 오늘을 알차게 보내자.

김상회의四季
명당터에 대한 동경

필자의 오랜 신도중의 한 분이 지난 백중재를 잘 회향하고 나서 따로 질문을 했다. 내용인즉, "원장님, 저희 시택은 원래 선산이 있던 것을 시아버님의 위 형제들이 고향을 떠나오면서 다 정리를 했어요. 시아버님은 막내아들이었기에 발언권도 없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따로 묘를 쓰지 말고 화장을 해서 뿌려 달라고 유언을 해서 일정기간 납골당에 모시고는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 시어머님이 수목장(樹木葬) 얘기를 하시네요. 수목장을 할 때도 흙시 좋은 터를 잘 찾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질문의 요지는 비록 봉분을 쓰는 뒷자리가 아닐지라도 어차피 화장한 유해를 수목장하는 것이니 묘터의 좋고 나쁨을 살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본인 또한 나중 문제를 생각하면 한 번은 고민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젊었을 때는 관심이 적지만 일정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본인의 뒷자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선산이 있다면 좀 다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공원묘지나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수목장 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듣자하니 공원묘지 또한 가격이 만만치 않으며 일반 서민들 역시 납골당 사용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죽어서 가져갈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는 하지만 죽어서조차 편안하게 누울 자리를 갖는 것이 형편에 따라 다르니 세속의 삶은 망자에게도 꼬리표가 따라 붙는 듯하다. 봉분을 쓰는 묘터나 수목장 역시 얼핏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위치라 할지라도 그 밑에 수맥이 흐르거나 하면 당연히 피해야 할 것이다. 다만 명당터를 볼 줄 아는 안목은 갖추기가 쉽지 않다. 사바세계는 지구의 역학이 존재하는지라 단박에 바람이 세면 바람을 피하려 벽을 세우게 되어 있고 비가 오면 비를 가릴 처마 밑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기에 일정 기간 동안은 망자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 모두가 마음이 편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통적인 도가의 사상에서는 음택풍수적인 차원에서 외형적인 지리와 위치에 대하여 좋고 나쁨이 존재한다. 실제로 물리적인 이유에서도 사실이 그러한 경우가 늘 있다. 그러나 원용한 우주의 존재론적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러한 문제는 스쳐지나가는 바람 속의 먼지 한 톨에도 해당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다. 시간의 장단이 있을 뿐 언젠가는 지수화풍으로 우리의 흔적은 흩어져 섞일 것이기 때문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8				
		7						3
	8	1	5		4			9
8	9		6					4
	3						2	
1				7		9	6	
3		9			4	7	6	
4				5				
			8	9				

	2							
7				8		5		6
				4		3		8
				1			7	
	1	9	8			4		
					3	1		2
	5	8		6	9			
				5				
	7	6			4		1	

스도쿠 정답

5	7	8	9	6	8	2	1	4
2	1	6	5	2	4	8	9	7
8	9	2	7	3	1	6	5	8
9	6	8	2	4	7	5	3	1
2	3	5	1	8	6	7	9	8
7	4	1	2	5	9	2	6	8
6	2	7	8	9	5	1	8	2
8	2	6	1	2	9	7	5	
1	5	9	8	7	2	4	6	
5	1	8	7	2	9	4	6	
7	9	6	8	2	5	1	4	
2	8	1	4	6	9	2	7	
6	5	7	2	8	6	1	9	
6	2	9	5	1	7	2	8	
8	6	8	2	7	5	9	1	
9	2	5	1	8	4	7	6	
1	7	2	9	5	6	4	3	

문제 제공= **보너스**

www.pdna.co.kr



- 연어케어의 원료성분 Sodium DNA 함유
- 아데노신 함유

“경험해보세요 **동안크림**의 놀라운 효과”

P+DNA

피디엔에이 크림

구입문의 / 고객센터

☎ 070-4870-0708

피부관리샵의 연어케어, 받아보셨나요?

이제 바르는 크림으로 경험해보세요. 피디엔에이 크림은 식약처 고시 주름개선 성분인 아데노신에 연어과 어류인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Sodium DNA, 병풀 추출물, 어성초 추출물, 치아씨 추출물, 백년초열매 추출물, 올리브 오일 등 7가지 피부 보호 성분이 함유된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이번 추석엔 동안을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또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 언제였나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 받던 시간, 아름답게 빛나던 그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선물해보세요. 순하고 편안한 사용감, 더없는 만족감까지. 크림 하나로 경험하는 동안 관리, 피디엔에이 크림. 당신의 아름다운 변화, P+DNA가 함께 합니다.

크림 하나로 동안관리, 피디엔에이 크림

눈가, 입가 등 고민되는 주름이 있다면, 피디엔에이 크림으로 꾸준히 관리해보세요. 피디엔에이 크림은 풍부한 영양감, 짙 찬 수분감으로 피부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피부진정, 피부개선에 도움을 주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바뀌어줍니다. 매일 관리 받은 듯 자연스럽게 빛나는 물광 피부, 동안 관리 효과를 기대해 보세요. 피부의 시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 소개된 피디엔에이 크림]



▶ KOTRA BUYERS GUIDE Pioneer 소개 (2018.8)
 “Skin regenerating cosmetics”
 피디엔에이 크림은 무역협회가 발간하는 바이어스 가이드는 물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국내 주요 일간지에 동안크림으로 보도 소개된 제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pdna.co.kr에서 확인하세요.



MFDS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하우스 디바이드



**윤위중의
잠시 심포**

지금 남과 북은 타의에 의해 서로 갈라진 70여년의 틈을 메우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있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득실에 상관 없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을 다짐하는 가슴 뭉클한 장면들이 잇따라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안에서 틈이 생기고, 이 틈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동산 얘기다. 요즘 주위 사람들을 만나면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라 부동산 얘기만 한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넘쳐 보이고, 반대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웬지 모를 불안과 초조함을 호소한다. 집의 소유 여부로 계층이 갈리는 '하우스 디바이드(House Divide)'다. 일반 월급쟁이들이 일년에 기껏 저축할 수 있는 돈은 몇백만원에서 많아봐야 수천만원을 넘기기 힘들다. 당장 생계를 꾸려야 하고 아이들 학비 등에 돈을 쓰다 보면 일년에 몇천만원 저축하는 건 정말 쉽지 않다. 그런데 요즘 집값 뛰는 걸 보면 며칠 사이에도 몇천만원에서 지역에 따라 몇억원씩 오른다. 열심히 돈 모아서 내집을 마련하겠다는 꿈이 무참히 깨진

다.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그저 있는 집이 본인의 노력과 관계 없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뛰는 걸 보면 집 없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 좌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하우스 디바이드는 사회갈등도 유발한다. 한 지인은 이번 추석에 일가친척들이 만나면 분명히 집문제로 언짢은 일이 생길 것이라며 걱정하기도 한다. 하우스디바이드는 사회갈등뿐 아니라 지역갈등도 유발한다. 집값 상승이 특정 지역, 주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박탈감도 심하다. 일부에선 지역 유지들이 돈봉치를 싸들고 수도권에 주택을 매입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기도 한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집을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른다. 더군다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택지 공급은 제한돼 있는데 수도권 쏠림현상은 여전히 수요가 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분석이다. 시중 자금이 갈 곳이 없어 부동산에 몰리는 것도 이유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부동산 투자수익이 다른 분야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도 검토한다고 발언한 것도 이런 배경

에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정책 엇박자도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 국토부는 거래규제와 대출제한 등으로 수요를 누르고 있는데 서울시가 난데없이 대규모 개발계획을 발표해 집값 상승에 기름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있다. 문제는 이런 집값상승이 우리 산업 발전에, 우리 경제순환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시중 자금이 4차 산업혁명이나 신성장동력 발굴, 신규시장 개척 등에 투자돼야 돈이 제대로 돌고 고용이 활발해지면서 경제가 선순환되는데, 부동산 신규개발도 아니고 지금 있는 집의 가격만 오르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그저 있는 집에 어떤 부가가치도 더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저 수급에 따라 가격이 오르면 거품이 된다. 거품은 꺼지게 마련이다. 거품이 꺼지면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충격을 줄 것이다. 정부가 21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들어 벌써 여덟번째 정책이다. 일부에선 9·13 이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부동산이 21일 발표되는 공급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급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놔 대한민국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는 하우스 디바이드를 끝낼 길 기대해본다.

/산업부장 yhj@metroseoul.co.kr

주식,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라



**기지 수첩
손 엄 지
(파이낸스&마켓부)**

JYP 주가가 3만6000원을 넘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52주 전 주가는 9000원 수준. 불과 1년 새 4배가 올랐다. JYP 주식 100주를 보유해온 주주라면 1년 전 90만원이 360만원이 된 셈이다. JYP 투자에 성공한 주주 중 트와이스 팬을 자칭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JYP 주식을 사게 된 이유도 트와이스가 좋아서라고. 그들은 진정한 '성덕(성공한 덕후)'이라 불릴만 하다. 이채원 한국투자밸류 대표 역시 성덕

이다. 지난 5월 31일 공시된 바에 따르면 한국투자밸류가 보유한 JYP 지분은 8.42%다. 지난해 JYP 주가가 6000원일 때부터 꾸준히 매수해온 결과다. 지난해 JYP 주가가 1년 새 150% 오르면서 모건스탠리가 지분을 정리할 때도 한국투자밸류는 추가매수를 선택했다. 물론 이 대표가 JYP 주식을 사들인 이유는 단순히 '트와이스가 좋아서'가 아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는 엔터테인먼트 덕후다. 사석에서 만난 그는 일본 유학 중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광폭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격했고 파급력을 실감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방탄소년단의 직캠을 보여주며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며 감탄했다. 일

본에서 트와이스의 인기는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JYP주식은 더 갈거라고 예견했다. 그 후 JYP 주식은 4배가 오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주식투자는 단순하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생산하는 기업을 사면 된다. 시장에 먹히는 것을 생산하는 기업이 곧 성장성 있는 기업이자,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존리 메리트자산운용 대표도 말했다. 보톡스 맛을 생각하지 말고, 메디톡스 주식을 사라고. 이후 지금까지 메디톡스 주가는 두 배 이상 올랐다. 이 때 보톡스 대신 메디톡스 주식을 사다면 보톡스 열 번은 더 맛을 수 있는 돈이 생겼을 것이다.

/sonumji301@

인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과장급 전보 △기반시설국 녹색에너지환경과장 정경희
- ◆경북 김천시 △새마을문화관광과장 이도우 △맑은물사업소장 최병준
- ◆평택시 □4급 △상하수도 사업소장 서종철 △총무국장 정승채 □5급 △총무과장 남성진 △기

회계산과장 최윤수

부음

- ▲유태분씨 별세, 장인화(동일철강 회장)씨 모친상 = 18일 오후, 부산시민장례식장 1층 MVG실, 발인 20일 오전 9시30분. ☎051-636-4444
- ▲이신자씨 별세, 최훈성·성호·영미씨 모친상, 엄광섭(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씨 장모상 = 18일, 대전한국병원 장례식장 동백실, 발인 21일 오전 7시 ☎042-638-4440
- ▲박남수씨 별세, 김중진(전 인천대학교 대외협력홍보팀장)씨 모친상 = 19일, 용인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발인 21일 오전 6시 30분 ☎031-337-3100
- ▲전해선씨 별세, 배병길(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 반장)·배외수·배태순·배병용(국민은행 부장)·배병호씨 모친상 = 19일, 대구 달서구 월배로 중앙요양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21일 오전 7시 ☎053-627-4444

신세계그룹

소외계층·어린이들에 추석맞이 선물 전달

신세계그룹이 추석을 맞아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다. 이번 선물 전달을 위한 후원금은 총 3억원 규모이며, 총 3000명의 어린이에게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누리상품권을 10만원씩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후원금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희망배달캠페인 기금에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회사 매칭 기금이 더해진 것이라 더 의미가 깊다. 선물을 전달받은 어린이 선정과 선물 전달은 추석 명절 전까지 어린이재단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



KRX국민행복재단-부산시, 어린이 놀이터 조성 협약식 한국거래소(KRX) 국민행복재단은 19일 부산시청에서 부산시청과 함께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RX국민행복재단은 올해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후원해 부산 소재 노후된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포장공사 및 놀이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고, 안전시설 점검 등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왼쪽 네 번째)과 오거돈 부산광역시시장(오른쪽 세 번째)이 관련 인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KRX



LG이노텍, 8개 사업장서 송편나눔 봉사활동 LG이노텍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국내 8개 사업장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웃사랑 송편나눔' 릴레이 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이웃사랑 송편나눔은 서울 본사와 마곡, 파주, 안산, 평택, 청주, 구미, 광주 등 전국 8개 사업장에서 30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여해 총 3000여명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추석 송편을 선물했다. /LG이노텍



KB증권, 소외이웃에 사랑나눔 활동 KB증권은 추석명절을 맞아 고객과 함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정(情)든든 KB박스'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에는 독거 어르신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까지 수혜계층을 넓혀 보다 많은 소외 이웃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했다. KB증권 임직원들이 지난 18일 양천구 일대에서 진행된 '정(情) 든든 KB박스' 전달행사서 고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증권



롯데하이마트, 가전유통업계 최초 부패방지 국제표준 인증 획득 롯데하이마트가 국내 가전유통업계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국제 표준인 'ISO37001' 인증을 취득했다. 19일 서울시 대치동 롯데하이마트 본사 사옥에서 열린 'ISO37001' 인증식에서 롯데하이마트 김현철 상품본부장(사진 왼쪽부터),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대표, 롯데하이마트 장대중 영업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하이마트



호텔신라 '맛있는 제주만들기' 봉사활동 19일 호텔신라는 제주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인 '맛있는 제주만들기' 식당 주인들과 함께 서귀포시에 있는 대표경로당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과 독거노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갈비탕, 즉석 비비규 등 직접 만든 음식을 제공하는 '맛있는 밥상' 봉사활동을 하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임상필 제주도의원, 하주호 호텔신라 전무, 오상훈 제주신라호텔 총지배인 등도 함께 참석해 배식과 복지관 인근 환경 정화 활동을 도왔다. /호텔신라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02721-9851, 9826
독자센터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4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49호

시공사: (주) **DAELIM**
아크로텔 천안두정
 1,135세대 오피스텔

계약과 동시에 월세 바로 지급!
월 90만원 / 연 1080만원 10년 확정 지급!

선시공 후분양
10년 임대보장

9.13 부동산 규제정책 반사이익 수혜상품!!



- ✓ 1가구 2주택 미적용
-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제외대상
- ✓ 양도세 증가 미적용

삼성 SDI, 디스플레이
 LG생활 + 17개 대학교
 ↓
 약 18만 풍부한 수요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산업단지 5분!**

5천에 2채

계약즉시
 월세수익

임대료지급보증 보험증권 발행

100% 임대완료! 준공완료!

- ✓ 공실걱정 無
- ✓ 유지보수 無
- ✓ 중개수수료 無

시행사: (주)골든핏씨앤디 **대림산업** **아시안신탁** **엔터렘**

▪ 우리은행 : 1006-301-474637
 ▪ 예금주 : 아시아신탁(주)
 ▪ 청약금 : 100만원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문의 1811-8821

10년 임대보장 확정! (보험증권 발행)

시공사: **DAELIM** 아크로텔 천안두정
 1,135세대 오피스텔



시공사: (주) **DAELIM** 아크로텔오피스텔 **서울의 반값 매각 공고**

▶ 건축개요

사업명	천안 두정 대림이 지은 아크로텔 - 선임대 반값 매각		
사업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64	신탁사	아시아신탁(주)
지역, 지구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제1종지구	시공사	대림산업(주)
대지면적	7,338.40㎡	연면적	67,484.95㎡
건축규모	지하4층 / 지상12층	공급호수	1,135세대

▶ 청약 및 계약 신청자격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국내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해 가능합니다. 분양신청의 중복 호실에 있는 경우 입금 순서에 의해 결정됩니다.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청약신청시 (배우자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계약신청시 (배우자포함)	* 신분증,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

▶ 분양조건

전세대 임대완료			
보증금 500 / 월 45	보증금 1,000 / 월 41	보증금 1,500 / 월 37	보증금 6,500 / 월 20
* 10년 책임임대보장제 (보증보험증권발행)			

▶ 청약금 납입절차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청약금
우리은행	1006-301-474637	아시아신탁(주)	100만원
* 상기 입금계좌 접수순으로 1순위 층, 호수 선착순 마감합니다. (미계약시 전액환불)			

▶ 분양금 납입절차

계약금	담보대출	잔금
10%	70% (신한은행 상도역 지점)	10% ~ 15%
* 실무자금액 2천만원대		

▶ 청약 및 계약장소

청약, 계약	신청장소
층, 호수 선착순 지정계약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0, 서보빌딩 2층 대림이 지은 아크로텔 오피스텔 홍보관

*예약담당제이므로 담당자와 방문예약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참조하시면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천안 두정아크로텔은 대림산업이 시공, 준공완료한 임대주택으로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주)골든핏씨앤디의 임대 보유분 매각 결과는 시공사인 대림산업과는 관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혜택**
- 1 1가구 2주택 미적용
 - 2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 3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제외대상 (분양가 1억미만)
 - 4 양도세 증가 배제

문의 1811-8821

장관은 여성인데... 국토부 기관 '유리천장'

공기업 23곳 중 여성기관장 1곳

‘여성기관장’ 코레일유통 1곳뿐
전체 임원 225명 중 남성 92%
LH, 14명 중 3명女 ‘가장 많아’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여전히 ‘여성임원 가뭄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이 기관장인 곳은 1곳에 불과하고,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도 7개에 달한다. 정부의 여성 관리자 확대 정책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임원현황을 보면 국토부 산하 준정부기관·공공기관·공기업 23곳 중 여성 기관장이 있는 곳은 코레일유통(공공기관) 한 곳뿐이다. 이 외 공공기관 9개와 준정부기관 5개, 공기업 8개의 기관장은 모두 남성이다.

전체 임원 수로 따져보면 총 225명(공석 제외) 중 남성이 92%(207명)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임원은 8%(18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곳도 있다.

한국건설관리공사,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에스알,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7곳은 여성 임원이 전무하다. 특히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15명의 임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다.

한국건설관리공사도 10명에 달하는 임원이 모두 남성이다.

나머지 16곳의 여성 임원도 코레일유통 김은순 기관장 및 상임이사과 한국도지주택공사(LH) 장옥선 상임이사를 제외하면 모두 비상임이다.

LH는 임원 14명 중 3명이 여성으로, 여성 임원이 가장 많은 곳이다. 코레일유통도 임원 7명 중 2명이 여성인데, 김은순 기관장이 상임이사까지 겸하고 있어 직책으로만 따지면 여성이 세 자리를 꿰차고 있다. 그러나 기관 유형별로 따지면 여성 임원 비율은 더 낮아진다.

공공기관만 보면 총 10곳의 전체 임원 73명 중 5명만 여자로, 비율은 6.8%에 불

과하다. 공기업도 8곳의 전체 임원 97명 중 여성 임원이 9.30%(9명)뿐이다. 준정부기관 5곳도 전체 임원 55명 중 여성 임원은 4명으로 7.3%에 그친다. 기관 유형별로 여성 임원의 비율이 전체에서 10%를 못 넘는 셈이다.

이는 정부의 ‘여성 유리천장 해소’ 계획과도 동떨어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해 정부 합동으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을 세우고 오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여성임원을 20%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올해 상반기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이 14.3%까지 올라 목표치인 13.4%를 웃돌았다. 그러나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만 따지면 6.8%로 전체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의 반 토막도 채 안 된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해 준정부기관, 공기업 등에서도 목표치를 채운 곳은 거의 없다. 코레일유통(28.6%), 한국도지주택공사(21.4%)만 20%를 넘었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준정부기관·공기업 23개 임원 현황〉

분류	기업기관명	기관장 성별	임원수(명)	
			남	여
공기업	한국도로공사	남	12	2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남	11	1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석	8	1
공기업	주택도시보증공사	남	10	0
공기업	한국감정원	남	10	1
공기업	한국공항공사	공석	11	1
공기업	한국철도공사	남	15	0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남	11	3
공공기관	한국건설관리공사	남	10	0
공공기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남	13	0
공공기관	에스알	남	5	0
공공기관	주택관리공단	남	5	0
공공기관	코레일관광개발	남	7	1
공공기관	코레일네트웍스	남	6	0
공공기관	코레일로지스	남	5	0
공공기관	코레일유통	여	5	2
공공기관	코레일테크	남	5	1
공공기관	항공안전기술원	남	7	1
준정부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남	11	1
준정부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남	11	1
준정부기관	한국국토정보공사	남	9	1
준정부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남	8	0
준정부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남	12	1
합계		1(4.8%)	207(92%)	18(8%)

/출처=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정리=채신화 기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65곳 인증서 수여

노동부·인력교, ㈜하이브랩 등 신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19일 서울 엘타워에서 ‘2018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65개 기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지난 2006년 도입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Best HRD: 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는 실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을 채용·관리하고, 노동자가 학습을 통해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이 우수한 기업에게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동부를 포함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신규인증 신청기관 중 최고점수를 받은 ㈜하이브랩(대표 서종혁)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하는 종합디지털 대행사로 동종업계 최초로 Best HRD 인증을 받았다.

㈜하이브랩은 ▲신규사원의 조기적응

을 돕는 ‘Hi-BEE’ 활동 ▲팀 내 코칭활동인 ‘Hi-TALK’ ▲조직 내 소통강화를 위한 ‘Hi-TOGETHER’ 활동 등 직원들의 업무 몰입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았다.

휴대용 프린터 제작업체인 디에스글로벌(주)은 2010년 임직원 6명의 소기업으로 시작해 9년 만에 근로자수 271명, 연매출 117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디에스글로벌(주)은 성장의 비결을 ‘학습문화 조성’을 통한 사내 전문가 양성’으로 꼽으면서 CEO 경영독서, 리더십 특강, 연 64시간 교육이수제도 등 조직 내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진행했다.

재인증을 받은 IT서비스 업체인 ㈜다우기술은 인사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제도를 통해 전사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 및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장을 장려한다.

학습 동호회와 독서모임, 사내 세미나, 신기술 연구 조직 등 다양한 사내 학습조직을 운영하고 학습자 수요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승진 포인트 제도를 통해 내부인사의 투병성과 공정성을 높여 우수한 인재가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고당도 신품종 국산 배 ‘신화·창조’ 첫 선

농진청, 올해 총 10.5톤 출하
추석 전 유통... ‘선물용’ 인기

올 추석에 선물하기 좋은 국산 배 품종이 첫 유통을 앞두고 있어 배 산업도 활기를 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19일 농진청이 개발한 ‘신화’와 ‘창조’ 품종을 추석 전에 유통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배 재배 면적의 86.8%가 ‘신고’ 품종이다. 일본 품종인 ‘신고’ 배는 원래 10월 상순에 출하되는데, 올해처럼 추석이 9월인 해에는 수확을 앞당기기 위해 생장조절제로 크기를 키워 출하해왔다.

이른 추석마다 크기만 키워 유통한 배를 먹고 맛에 실망한 소비자는 점차 구입을 꺼리게 됐고, 이는 배 산업 위축으로 이어졌다.

해양오염사고 초기 대응 ‘위험성 평가모델’ 구축

해양환경공단(KOEM)은 과거 해양오염사고 통계를 활용한 해양오염사고 초기 ‘위험성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선제적 해양오염사고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단은 과거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유출량과 사고발생 당시 주변 요소들의 연관 관계를 밝힘으로써 사고선종, 사고선의 톤수, 발생시각 등 핵심위험요소를 선정하고, 핵심요소별 위험관계를 정량화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량화된 핵심요소들을 사고발생 시 즉시 취합, 총점화 해 결과 값에 따른 방제자원의 동원규모, 대응방법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모델’을 구축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신품종 배 ‘신화’(왼쪽)와 ‘창조’.

농진청에서 개발한 배 ‘신화’와 ‘창조’는 9월 상순이나 중순에 출하할 수 있어 ‘신고’ 품종보다 빨리 유통할 수 있다. 두 품종 모두 당도가 13브릭스 정도로 높고 맛이 뛰어나다.

품종명은 이른 추석에 유통할 수 있으면서 품질도 뛰어나 기존 배 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이로운 ‘신화를 창조하자’는 바람을 담아 지었다.

‘신화’ 품종은 평균 무게가 630g 정도로, 9월 상순(나주 기준 9월 5일~10일)에 수확된다. 특히, 추석 선물용 배는 모양도

중요한데 ‘신화’는 상품성 있는 열매 생산 비율이 높고 상온에서 30일 정도 보관할 수 있을 만큼 저장력도 좋다.

‘창조’ 품종은 평균 700g 이상의 큰 과일이다. 9월 중순(나주 기준 9월 10일~15일)에 수확하며, 껍질이 얇아 꺾어먹기 편하다. 큰 열매를 선호하는 명절에 선물하기 좋다.

올해 출하할 ‘신화’는 약 7.5톤(경기도 안성), ‘창조’는 약 3톤(전남 해남)으로 농협 하나로클럽, 서울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의 청과유통업체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황정환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은 “우리 배 ‘신화’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는 사례를 만들어 이를 기점으로 껍질째 먹는 배 등 기존 품종과는 맛과 기능성에서 차별화된 신품종들을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가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김천 5개 초교 앞에 ‘엘로카펫’ 설치

도로공, 교통사고 예방 활동

한국도로공사가 김천시 어린이 안전 통학 지킴이 ‘엘로카펫’을 설치한다.

도로공사는 김천 울곡초등학교에서 김천시,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엘로카펫 설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량이 많아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울곡·농소·운곡·김천서부·김천초등 김천시 5개 초등학교 앞에 엘로카펫 설치를 지원했다.

엘로카펫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노란색 안전지대로, 쉽게 눈에 띄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고 감속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다. 올 8월 기준으로 전국 714개소에 설치돼 있으며, 김천시에는 이번이 처음 설치됐다. /채신화 기자



김성진 한국도로공사 홍보실장(왼쪽)이 김창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북지역본부장과 지난 18일 김천 울곡초등학교 정문에서 엘로카펫 완공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8 | 해질 / 18:33

9월 20일(木)
음력 : 8월 11일

수도권 날씨 **22~19°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17/21

동두천 18/22

가평 16/20

파주 18/22

서울 19/22

양평 18/22

인천 19/23

수원 18/21

용인 18/21

평택 19/23

백령도 18/2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경제·금융]
경제동맥의
불순물 제거하라
CSI장비 도입
08

[공기업]
국토부 기관 '유리천장'
공기업 23곳 중
여성기관장 1곳뿐
L6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젯빛서 장밋빛’ 한반도의 미래 바꾼 ‘9월의 어느날’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와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 입장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입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 옥류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마친 후 특별수행원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김 국무위원장,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최태원 SK 회장(왼쪽)이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오찬에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 구광모 LG 회장의 기념 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평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 학생들의 환영을 받으며 공연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9일 오전 평양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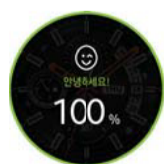
SAMSUNG

Galaxy Watch



시계 본연의 모습을 담은 디자인

원형 베젤, 깊이감 있는 워치페이스, 초침소리로 리얼 워치 디자인 완성. 손목에 착감기는 착용감과 다양한 스트랩으로 나만의 스타일 연출



강력해진 최대 80시간 배터리

매일 충전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 46mm : 시계 항상 표시 기능 OFF 사용 기준, 최대 80시간 사용 가능
- 42mm : 시계 항상 표시 기능 OFF 사용 기준, 최대 45시간 사용 가능
- 사용 환경 및 설정에 따라 실 사용시간 상이



나만의 헬스 트레이너

39종 다양한 운동 측정과 5ATM 방수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체계적인 운동 관리

- 5ATM : ISO 22810-2010 표준에 따른 수심 50m 방수 지원

갤럭시 워치 론칭 이벤트

기간 2018.08.24. ~ 2018.09.30. | 대상 기간 내 갤럭시 워치(LTE, B/T) 구매 및 삼성닷컴 이벤트 신청 완료한 고객 전원 | 내용 ① 30,000원 상당 스트랩을 만 원에! (55종 중 택1) ② 55,000원 상당 B/T Pen Plus를 만 원에!

*자세한 사항은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